

말씀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의역 5

1998

별책 부록 : **여리이랴**



5 1998

5월의 주요 기사



표지
앞표지 그림: 마이클 제이 디즈, 우물 옆에 있는 리브가
뒤표지 그림: 데니스 스미스, 성취

어린이란 표지
그림: 태드 알 퍼터슨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역경의 축복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16 안식일을 기억하라 디 켈리 옥튼
- 24 폭력에 대하여 경계함 해롤드 옥스
- 25 방문교육 메시지: 성약을 맺고 복음 의식을
받음으로써 시온을 건설함
- 26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 34 다시 돌아옴 돈 엘 셸리
- 42 신앙이 깊은 여성

청소년란

- 10 리잘 고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리 리브시
- 28 질의 응답: 우리는 경전에서 무엇을 상고해야 할까요?
- 33 물문 메시지: 가족 사진
- 40 나의 삶을 돌아킴 후안 안토니오 플로레스
- 48 가장 훌륭한 가족으로부터 케이 헤이고

어린이란(별책 부록)

- 2 친구가 친구에게: 달린 에이저 옥스 장로
- 4 함께 나누는 시간: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시드니 레이놀즈
- 6 이야기: 태미 콕의 자매 트레이시 라이트
- 10 심심풀이
- 12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함: 새거스텀 가족
콜리스 클레이튼
- 14 물문경 이야기: 물문경이 나온 과정



16쪽 참조



42쪽 참조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헝클러, 토마스 에스 문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화:보이드 케이 패커, 앨 롭 매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날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말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라, 린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올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잭 에이치 고슬러드

고문: 제이 이 잰슨, 존 엠 매드슨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올 나이튼

기획과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헬리

그래픽 책임자: 윌러 알 로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차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윌 밥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디앤 워커

편집 보조: 제니퍼 그리우드

편집/제작 부장: 매리언 미턴데일

제작 보조: 배스 테일러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벤 캠펜

디자인: 새리 쿡

제작 부장: 제이 앤 피터스

생산 관리: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데니즈 커버, 래드

알 피터슨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라스크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슨

등 권: 제 396호, 제 35권, 제 5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8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 엠

편집인: 홍우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일반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앞/사우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장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와 문의 사형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 기관지의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함.

월 간: 중국어, 헝가리어, 네덜란드어, 핀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시모어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
격월간: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 불가리아어, 세부어, 체코어, 피지어, 길버트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1998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April 1998 no. 4.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4.00.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old and new address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간증을 나눔

저는 1997년 3월호의 대관장단 메시지에서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한 말씀 "간증 나눔의 중요성"을 통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리아호나(영어판)를 받기도 전에, 3월달에는 간증을 할 때 더욱 용기를 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의 집안에서 저만 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늘 그렇듯이 간증을 나누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제안하신 대로 따른다면 저는 축복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크리스티 리하이 올리베로스
필리핀 세부 스테이크
세부시 제1와드

봉사를 위해 준비함

방금 저는 처음으로 리아호나(포르투갈어판)를 받고, 교회에 회원들을 위한 대화의 방편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저는 복음 선교사로 봉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들은 제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될 것과 교회의 참됨을 가르쳐 주신 선교사들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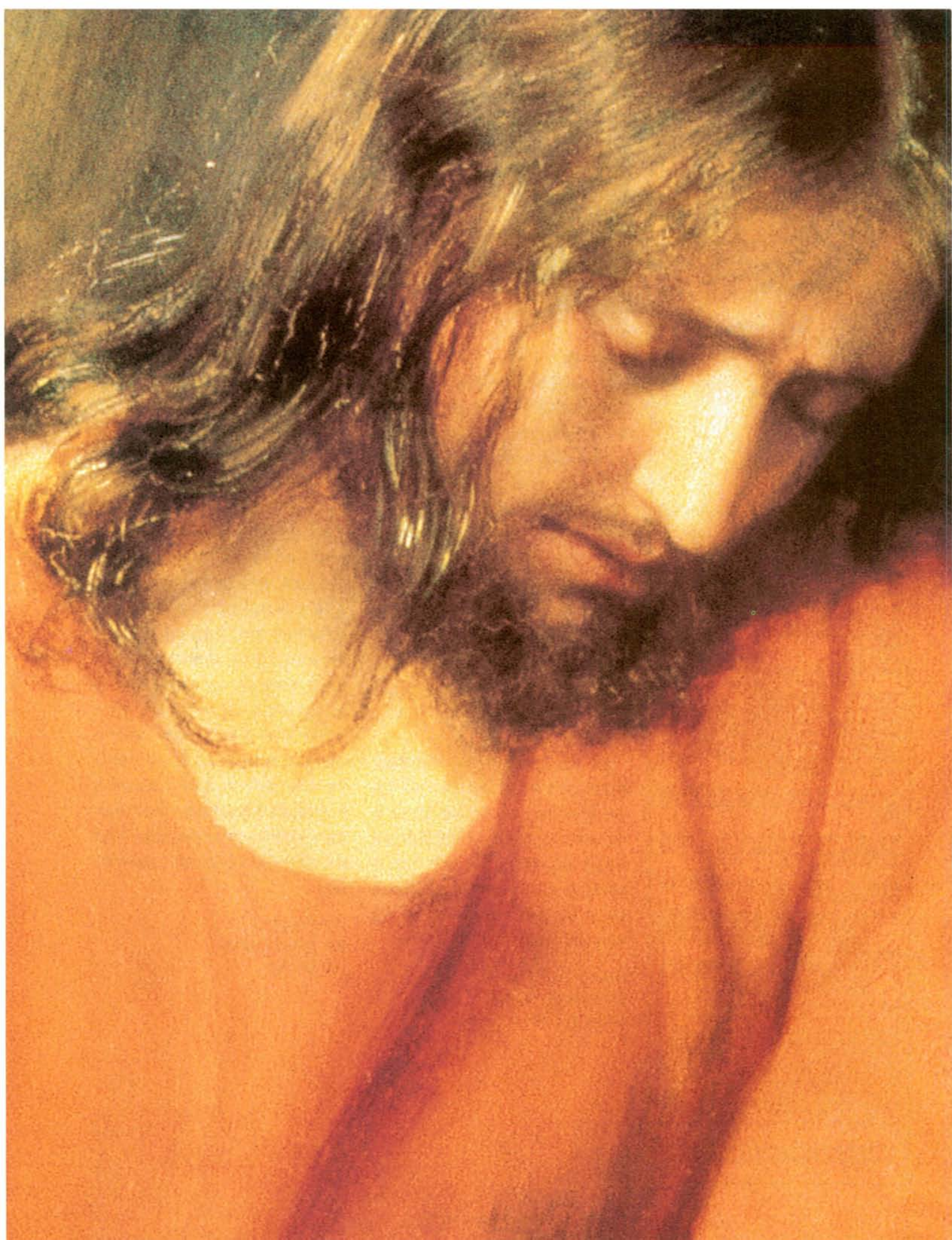
마실린 로드리구스 엘브스
브라질 콘타렘 스테이크
디비노폴리스 지부

하나가 되게 하는 아름다운 잡지

리아호나(스페인어판)는 아름다운 잡지입니다. 매월 발행되는 이 잡지에 훌륭한 예술 작품이 실려있습니다. 저는 특히 엔토니오 시세리의 "그 사람을 보라!"는 1997년 4월호 표지 그림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자주 리아호나를 갖고 버스나 지하철을 탑니다. 사람들은 제게 리아호나에 대해 묻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과 리아호나의 아름다움과 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들이 창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림 모두를 세밀하게 감상하고 화가들이 영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의 창작성에 감탄하고 맙니다. 리아호나는 교회 본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우리에게 유희와 사 진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저는 리아호나를 통해서 전세계로 펼쳐지는 교회의 위대한 사업의 한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회원이 쓴 기사와 그 회원들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 하나가 되라는 주님의 권고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 (교리와 성약 38:27)

시몬 곤잘레즈
케베크 몬트리올 스테이크
몬트 레이 와드



역경의 축복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제가 오래 전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 저는 그 지역의 신차 판매 회사를 위해서 사무실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해를 그 회사에서 법률 자문 역과 법인 이사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들 하나가 제가 가지고 있던 법률 자문 역을 인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들과 함께 판매 회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저는 새로 출고된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고 멋진 값비싼 차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빛으로 사장에게 차가 제대로 팔리지 않으면 그 동안 냈던 이익도 없어지고, 재정적인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의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차들이 가져 올 이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들이 저보다 사실을 더 정확하게 보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지만, 불현듯 제 아들은 공황을 겪지 않았었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대공황을 헤쳐 나온 사람으로서 저와 제 아들은 줄지어 선 신차들을 각각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돈 빌려 준 사람의 무자비함이 어떠했는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시험과 성장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들 시련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험입니다. 번뇌와 괴로움의 시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시기도 됩니다. 겹세마네 동산에서 구세주가 겪은 고통은 말할 것도 없이 인간에게 덕진 것 중에서는 제일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영생의 약속이라는 가장 위대한 좋은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몇 해 동안은 우리는 기술이 대단한 기능공의 이웃으로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절대로 빚을 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결심은 쓰라린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갓 결혼한 터라 식구는 많지 않았지만 대공황은 찾아왔고, 기술자였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당 잡힌 집은 넘어갔고, 가지고 있었던 기술 덕에 비교적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지어졌다고는 하지만 닭장에서 공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요즘 세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역경이 가져다주는 훌륭한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를 주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경에는 우리의 이해를 넓혀 주고, 우리의 감수성을 높여 주며, 우리를 보다 그리스도답게 만들어 주는 제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이런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은 진리에 이르는 첫째 길이다.” (돈환, 12편 50연) 구세주의 삶과 그의 예언자들의 삶은 높은 수준의 위대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역경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역경의 정의를 잘 내렸습니다. “어려움은 우리가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를 잘 알고 계시며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격한 선생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어려움은 우리의 정신력을 강화시켜 주며, 우리의 기술을 연마하게 해준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조력자이다. 이 어려움과의 싸움은 우리의 목적을 보다 잘 알게 해주며, 목적을 모든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해준다. 어려움은 우리를 현실 밖의 사람으로 용납해 주지를 않는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소고, 에드먼드 버크, 하버드 고전, 50권 [1909년], 24:299~300쪽)

성도들 중에도 가진 것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경험은 좋은 것이며 좋은 시절이 오면 옛날 이야기로 기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추억 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몰인정한 말일 것입니다. 저에게는 성공한 사촌이 있는데 그는 아내와 함께 전기 요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촛불로 불을 밝혀 가며 법과 대학을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보잘것없는 환경을 딛고 서서 막대한 수입과 명망의 직책인 제너럴 모터스의 총법률 고문이 된 흑인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무척 가난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는 가진 고생을 다했으며, 때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보통 천하고 힘든 일을 한 두 개씩 가졌었으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때로는 세 개까지 갖고 일해야 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세상에서 제일 급료가 많은 최고 간부들 가운데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그와 같이 가난한 소년들이었으며, 시험 받고, 도전 받으며, 위협 받고, 좌절을 겪으며 고생 끝에 그 위치에 이르는 사람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역경은 쇠를 구부러지게 하지만 강철을 만듭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거의 패배로 보이는 불행을 겪은 나머지 성격이 냉소적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 생각을 한다면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역경은 영적인 향상의 방편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경 그 자체는 우리를 하나님과 영적인 깨달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궁핍은, 만일 우리가 마음과 영의 아름다움을 지키기만 한다면,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보화, 클레어 미들미스 편저 [1962년], 107~108쪽)

우리가 풍요로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를 막론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 몇 가지를 제언해 보고 싶습니다.

1.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차 대신에 자전거, 자전거 대신에 걸어서 걷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살던 때를 예로 든다면 크림을 제거한 우유를 마신다는 뜻입니다.

2. 없이도 사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저축을 하십시오.

3.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대지의 아름다움, 일출과 일몰에서 보는 바 하나님의 감동적인 증언, 나무 잎새, 꽃, 새, 동물 등.

4. 걷기, 달리기, 수영 및 자전거 타기 등 신체적인 활동에



그림: 그레고 울슨, 리버티 감옥에 갇힌 요셉 스미스.

더 많이 참여하십시오.

5.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마음과 정신을 집중케 하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6.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십시오. 이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부를 약속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어려움을 견디 나가게 해주며,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과 결의와 신앙을 심어 주며, 우리의 내면적인 힘과 안정의 원천을 강하게 해주는 구세주와의 교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7. 혼자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습관을, 이것을 원하지 않으면 휘파람 부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혼자 노래하는 것이 혼자 중얼거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깃거리도 덜 되고 의문의 대상도 덜 됩니다. 언젠가 저의 아버님께서 사슴 사냥에서 빈손으로 돌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님의 기쁨은 좋았고, 영적으로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기쁜 마음으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함께 사냥에 나섰던 친구 한 분이 전나무와 사시나무 사이를 지나면서 마치 나팔을 부는 것처럼 큰소리로 항상 노래를 부름으로써 사슴이 놀라 도망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사슴의 고기에서보다 노래에서 오는 기쁨에 더 고조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시험과 성장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들 시련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험입니다. 번뇌와 괴로움의 시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시기도 됩니다. 깃세마네 동산에서 구세주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1839년 봄, 리버티 감옥에 있었을 때 계시를 받아 이렇게 기록했다. "오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린 큰 휘장이 어디 있나이까?"

겪은 고통은 말할 것도 없이 인간에게 닥친 것 중에서는 제일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영생의 약속이라는 가장 위대한 성취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대중의 입장에서 구세주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3)

아마도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인 문학을 통틀어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1839년 봄, 리버티 감옥에 있었을 때 받은 기록한 교리와 성약 121편, 122편과 123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탄원으로 시작됩니다. "오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린 큰 휘장이 어디 있나이까? 언제까지 당신의 손이 가만히 계시며 영원한 하늘에서 당신의 눈 곧 당신의 깨끗하신 눈이 당신의 백성과 종의 피해를 바라보시며 당신의 귀가 저희 울부짖음을 듣기만 하려 하시나이까?"

오 주여, 언제까지 저들이 이같은 피해를 입으며 부당한 압박을 받게 버려두시며 어느 때에 당신의 마음이 저들에게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제련소의 불을 통하여 그 분은 깨끗한 영, 감수성, 이해하는 마음, 친절과 겸손을 나타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하여 부드러워지시며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동정하시겠나이까?” (교리와 성약 121:1~3)

약속된 위안이 따릅니다. “나의 아들이야, 평안할 지어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받들어 올릴 것이요, 너는 네 원수를 모두 이기리라.

“네 친구는 네 편이 되어 따뜻한 마음과 우정어린 손으로 또다시 환성을 울리며 너를 맞이하리라.

“너는 아직 읍과 같지는 아니하니, 네 친구는 읍에게 한 것 같이 너와 다투거나 네게 죄를 지우지도 아니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121:7~10)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위대한 약속이 뒤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성령으로써, 참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로서 창세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 나타내시지 아니하신 지식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교리와 성약 121:26)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땅 끝에 있는 자도 네 이름을 물을 것이요, 어리석은 자도 너를 조롱하며 지옥도 네게 향하여 분노하리라.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귀한 자와 유덕한 자는 네게서 끊임없이 권고와 권위와 축복을 구하리라.

“또 네 백성은 배반자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결코 너를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교리와 성약 122:1~3)

그렇다면 왜 역경은 종종 우리에게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될까요? 그것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흔히 어려운 상황에서 도 극기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른 방법으로는 올 수 없는 시달림, 연마, 다듬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총관리 역원은 역경에 익숙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현재도 예외는 아닙니다. 심한 역경의 경우 세 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어렸을 때, 일의 필요성을 배우셨습니다. 어렸을 때에 고통스러운 경험을 많이 겪으면서 위대한 봉사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 분은 거의 물에 빠져 죽을 뻔하셨습니다. 안면 마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분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셨고,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누이 릿을 잃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천연두에 걸렸고 킴볼 자매는 남편의 얼굴에서 100개도 넘는 물집을 셀 수 있었습니다.

그 분은 어렸을 때 재정적인 비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투자한 것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읍과 같이 종기를 앓았는데 몇 년씩이나 계속되었고 언젠가는 코와 입술까지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한꺼번에 24개의 부스럼으로 고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에 따르는 견디기 힘든 고통에 몇 년을 시달려야 했고, 결국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쉰 목소리로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는 총관리 직원들의 축복으로 낮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부스럼 병과 함께 재발하였습니다. 성대의 심각한 암은 수술을 필요로 했으며, 그 후로 음성 훈련과 코발트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안면 마비가 재발되었으나, 피부암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련소의 불을 통하여 그 분은 깨끗한 영, 감수성, 이해하는 마음, 친절과 겸손을 나타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네이단 엘돈 태너 부대관장님의 가정에 관한 배경에 대해서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그 분이 자신의 어렵고 힘들었던 시작에 대해서 회상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캐나다의 남부 앨버타에 도착하셨을 때, 아버지에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하여 마차를 끌던 말들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쁘게 생각했던 것은 아버지는 나라의 도움을 청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분은 이웃을 위해 일하셨으며, 말을 잘 길



이런 어려운 시작으로부터 네이단 엘돈 태너로 알려진 거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림: 제리 톰슨



소년 시절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은 마데로 대통령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혁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콜로니아 주를 떠났습니다. 그 분은 마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멕시코 반란군들을 만났으며, 그들은 중을 깨내 그 분을 향해 겨냥했습니다. 그 분은 이것이 자신을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경험의 하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들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분은 농촌의 움집에서 사셨고, 지도 제 인생의 초기를 그 곳에서 보냈습니다. 그 분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리를 잡아 보겠다는 생각으로 10달러를 투자해서 자치 정부 토지 65헥타르를 샀는데 거의 성공할 뻔 했었지.” 그 분은 이런 말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왔을 때, 등에 걸칠 누더기 옷 하나 없었는데, 이제는 온통 누더기 옷이란다.”

“그 후로도 우리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을 지 모르지만, 그 작은 마을에는 전화조차도 없었습니다. 신문도 없었고, 주간지도 없었습니다. 더운 물, 찬물이 나오는 수도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없었을 때이니 그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짐작하시겠지만 중앙 집중식 난방 장치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집에 난방을 했었는가를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나의 경험과 의견, 브리감 영 대학교 올해의 말씀, 1966년 5월 17일, 6쪽)

이런 어려운 시작으로부터 네이단 엘돈 태너로 알려진 거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분은 앨버타 의회의 의장이었고, 앨버타 주의 광산 토지 장관이었으며, 트랜스 캐나다 파이프라인의 사장이었으며, 지부장, 감독, 스테이크 부장,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 사도, 네 분의 대관장의 보좌이셨습니다.

저는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의 어렸을 때의 삶 중에서 한두 가지 그 분의 말씀을 인용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멕시코 출생입니다. 멕시코의 콜로니아 주 치와와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태어났을 때 그 곳에 살고 계셨고, 저는 열 다섯 살이 될 때까지 그 곳에서 컸습니다. 마지막 2, 3년 동안, 마데로 대통령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혁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반란군과 정부군이 서로 쫓고 쫓기는 상황이었으며, 그러한 중에 반란군과 정부군은 우리 이주민들이 갖고 있던 것을 무기, 탄약, 보급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리지 않고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1912년 몰몬 피난민과 함께 멕시코를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던 데로부터 콜로니아 주 남쪽 13 킬로미터 떨어진 기차역까지 가는 길에서 겪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그녀의 일곱 자녀, 제 삼촌(어머니의 동생)과 그의 아이 다섯인가 여섯과 함께 타고 갔습니다... 우리에게는 트렁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 갈 수 있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마차 뒤에 실린 트렁크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반란군은 기차역에서 우리 마을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열을 지어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장 없는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총집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두 사람이 우리를 정지시키더니 수색을 했습니다. 그들 말로는 총을 찾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총도 탄약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삼촌에게서 20페소를 찾아냈습니다.… 이것을 빼앗고는 손을 저어 가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따라 여기서 이 사무실 끝만큼 거리를 가다가는 멈춰서 돌아서더니 총집에서 총을 꺼내 저를 향해 겨냥하였습니다. 제가 총신을 바라보았을 때, 이걸 마치 대포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로 잘 알겠지만, 그들은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았습니다. 오싹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경험의 하나였습니다.

반란군들은 우리가 탄 기차가 지나가자 선로를 폭파해 버렸습니다. 후에 아버지와 다른 남자들은 말을 타고 텍사스 엘 파소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먼저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재산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대식구를 부양하기 위하여 일하러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복지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연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영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솔트레이크 신학 연구원 대학부 영적인 모임, [1974년 10월 18일] 2~3쪽)

그 분이 결혼하여 가족을 갖기 시작했을 때, 롬니 부대 관장님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우체국에서 하루 종일 일하였고, 그러는 동안에 법대를 다녔습니다.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그의 성적은 높았고 좋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에 그는 유명 학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흰 모자 (영국의 상급 변호사가 쓰는 흰 직모)에 가입되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감독, 스테이크 부장, 최초의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의 한 분이었으며,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 그리고 대관장단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그 분은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 해 동안 그의 큰사랑과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이들 세 분 형제님들의 어려운 역경의 경험은 교회 내의 많은 지도자와 회원들의 삶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란 중에 인내하라. 이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이를 견디라. 보라, 네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토마스 패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고통 중에 웃을 수 있는 사람, 실망 중에 힘을 얻고, 결단을 가지고 더 용감하게 되는 사람을 사랑한다.” (토마스 패인의 작품, [1934년, 392쪽])

우리의 삶에서 닥치는 어려움과 시험으로 시달림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잊고 계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거친 면을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며, 우리 앞에 놓인 큰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적인 축복이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신이 동반하도록 해주시며, 우리가 의와 진리의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발자취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안위의 권고에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란 중에 인내하라. 이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이를 견디라. 보라, 네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24:8)□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요즘 세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역경이 가져다주는 훌륭한 축복을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른다.
2. 역경과 고뇌와 고통에는 우리의 이해를 넓혀 주고, 우리의 감수성을 높여 주며, 우리를 보다 그리스도답게 만들어 주는 제련의 과정이 있다.
3. 우리는 흔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기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전혀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채찍질, 연마, 시달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4. 우리의 삶에서 닥치는 어려움과 시험으로 시달림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잊고 계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거친 면을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며, 우리 앞에 놓인 큰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리잘 고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리 리브시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리잘
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 양식이다.

어쨌든 세계 최대의 학
교의 학생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다.
그러나 리잘 고등학교
에 다니는 교회
회원들의 경우
훨씬 특별한 점이 있다.

리잘 고등학교에서 제
일 먼저 눈에 띄는 것
은 학교의 규모입니다. 단순
히 보통 학교보다 혹은 대
부분의 학교보다 큰 정도로
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
니다. 리잘 고등학교를 보통
학교 규모로 본다는 것은
마치 태평양을 호수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격이지요.

리잘 고등학교에서 작은
것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
습니다. 학교 캠퍼스만 해도 필리핀 마
닐라 교외의 패시그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면적으로는 무려
6.7헥타르로, 마치 끝없이 펼쳐진 듯이
보입니다.

자, 이제 리잘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
생 수가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죠? 리잘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 수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독자 여러분 학교
의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2,000명,
3,000명, 아니면 4,000명쯤 됩니까?

리잘 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이보다 훨
씬 많답니다. 고등학교치고는 가장 많습
니다. 세계적인 기록을 등재한 기네스 북

도 리잘 고등학교를 “최대
의 학교”로 기록하고 있습
니다. 지난번에 조사했을 당
시에 이 학교에 등록된 학
생 수는 무려 19,738명으로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하지
만 현재의 교장 선생님은
21,139명의 학생이 이 학교
에 다니고 있다고 얘기합니
다.

“대단히 큰 학교랍니다.”
라고 이 학교의 17세된 학생
줄리 앤 누도가 말합니다. “제가 큰 학교
를 좋아하는 이유는 학생 수가 많아서
친구를 사귀기가 쉽기 때문이지요.”

리잘 고등학교를 다니는 줄리 앤과
나머지 학생들은 매일 교복을 입습니다.
남학생은 흰 와이셔츠에 진 갈색 바지
를 입고, 여학생은 흰 와이셔츠에 넥타
이와 붉은 색 바둑무늬 스커트를 입습
니다. 학교 수업은 하루종일 계속됩니
다. 이 학교의 이름은 1896년에 피살당
한 필리핀의 애국자이며 작가인 조세
리잘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학
교가 개교된 시기는 조세 리잘이 살해
되고 나서 6년 후였습니다.



리잘 고등학교의 학생인 줄리 앤 누도



위쪽 사진. 리잘 고등학교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 가운데 몇 명의 청년과 청년들이 군중 속에서 눈에 띄게 돋보인다. 왼쪽 사진. 매리테스 샬디바르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라는 기분이 듭니다."

바탕 사진: 파시그의 인근 교외에 있는 리잘 고등학교는 번잡한 마닐라 시내에서 떨어져 있다. 왼쪽: 학생들은 넓은 교내를 버스를 타고 다닌다. 가운데: 좋은 친구들과 공놀이를 즐기는 레논 파카르도. 오른쪽: 공부를 마친 후 와드 건물에 모인 청남들.

모범적인 특별한 존재

학교 뜰에 손으로 쓴 다음과 같은 페인트 표지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이 중등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학생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선택된 소수의 학생들은 다른 것에 더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리잘 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교회 회원이 있는데, 수적으로 몇 사람 안됩니다. 전교생이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모범적인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리잘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보다 제가 교회 회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는 특별한 존재라는 기분이 듭니다."라고 15세된 매리테스 켈디바르는 말합니다.

"리잘 고등학교의 대부분 학생들이 교회 회원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슬픈 생각이 듭니다." 라고 15세된 에드나 패카르도는 말합니다. "저의 반에서 저만 교회 회원입니다. 하지만 제가 신권, 즉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기쁩니다. 학교 친구들과 비교할 때 저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옳은 일을 할 것이며 급우들에게 옳은 일을 가르칠 것입니다."

매리테스는 모범을 보이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친구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지요. 친구들은 저의 태도를 좋아하는답니다.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면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물론들은 착하다거나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늘 입모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늘 최선을 다합니다."

남다른 모범을 보임

우리 교회는 필리핀에 1961년부터 정식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동남쪽 바다에 수많은 군도로 구성된 필리핀에 현재 47개의 스테이크와 14개의 선교부와 1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 특히 십대 청소년들은 우리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복음을 약간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 아직 확신을 못하겠다는 듯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리잘 고등학교의 말일성도 학생들은 날이면 날마다 수적인 면에서 아주 열세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신앙과 가치관에 대해 일부 급우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친구 한 사람이 카메라타 곤잘레즈에게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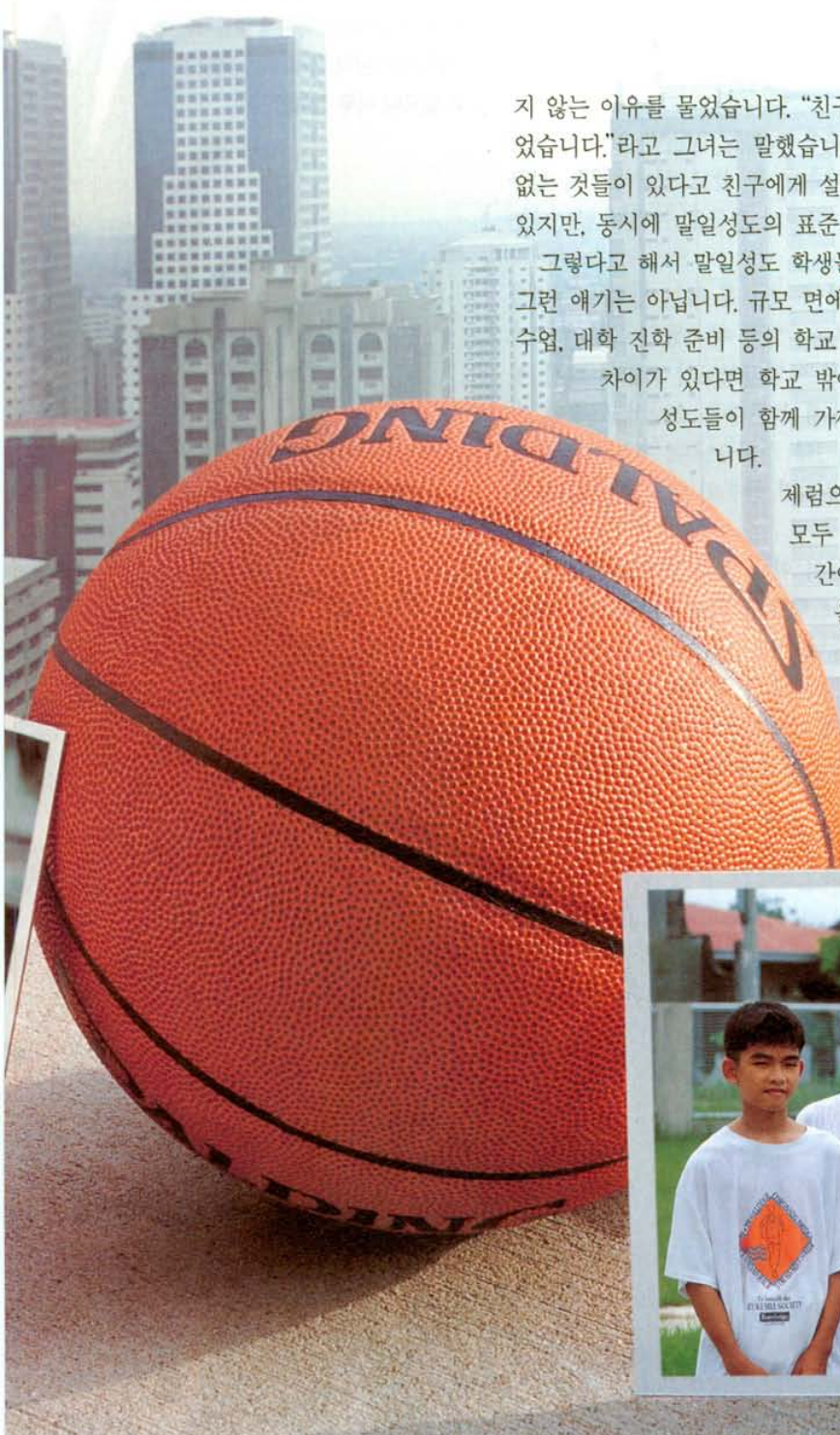
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친구에게 저는 말일성도 교회 회원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일 중에 저의 신앙상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친구에게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말일성도의 표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일성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과 담을 쌓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규모 면에서 리잘 고등학교가 엄청나게 크지만, 숙제, 힘든 수업, 대학 진학 준비 등의 학교 생활은 다른 고등학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학교 밖에서 자기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되겠지요. 말일성도들이 함께 가까워질 수 있는 활동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제럼으로 통하는 16세된 예루살렘 샌토스와 에드나는 모두 패시그 스테이크 패시그 제2와드의 회원으로 시간이 있을 때 와드에서 만나 농구나 배구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요일에는 그들은 성찬을 준비하고 전달합니다. 그들이 있고 싶은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 그들은 편안한 기분을 느낍니다.

“리잘 고등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모양입니다만, 저는 그렇지



열대 과일이 풍부한 나라에서 교회 회원들은 따뜻한 우정을 즐긴다. 오른쪽(왼쪽으로부터): 리니 킴벌리 라모글리아와 짜올라 미란다, 셸리 호프 엠 세바스찬. 아래: 에드나 파카르도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하나님의 권세인 신권을 갖고 있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않습니다."라고 제림은 말합니다. 저는 그런 유혹을 물리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은 제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이유를 늘 알고 싶어하지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을 경우 저를 그들의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들을 많이 하지요"

매리테스는 친구들이 복음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비회원 친구들에게 친구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물몬의 교리에 대해 대단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일성도의 표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몬경을 소개하고, 요셉 스미스와 지혜의 말씀 및 순결의 법 등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친구들이 우리가 물몬인 까닭과 우리가 믿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줍음을 잘 타는 매리카 멘도자는 학교 선생님이 학급 학생 중에서 카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라고 했을 때 스스로 손이 들었습니다. 매리카는 할 얘기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물몬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했지요. 저는 선생님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 설명했고, 말일의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와 구원의 계획 등 여러 가지 사실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매리카는 아직도 자신이 수줍음을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할 말을 다 하고 나니까 후련하였습니다.

말일성도는 남다른 사람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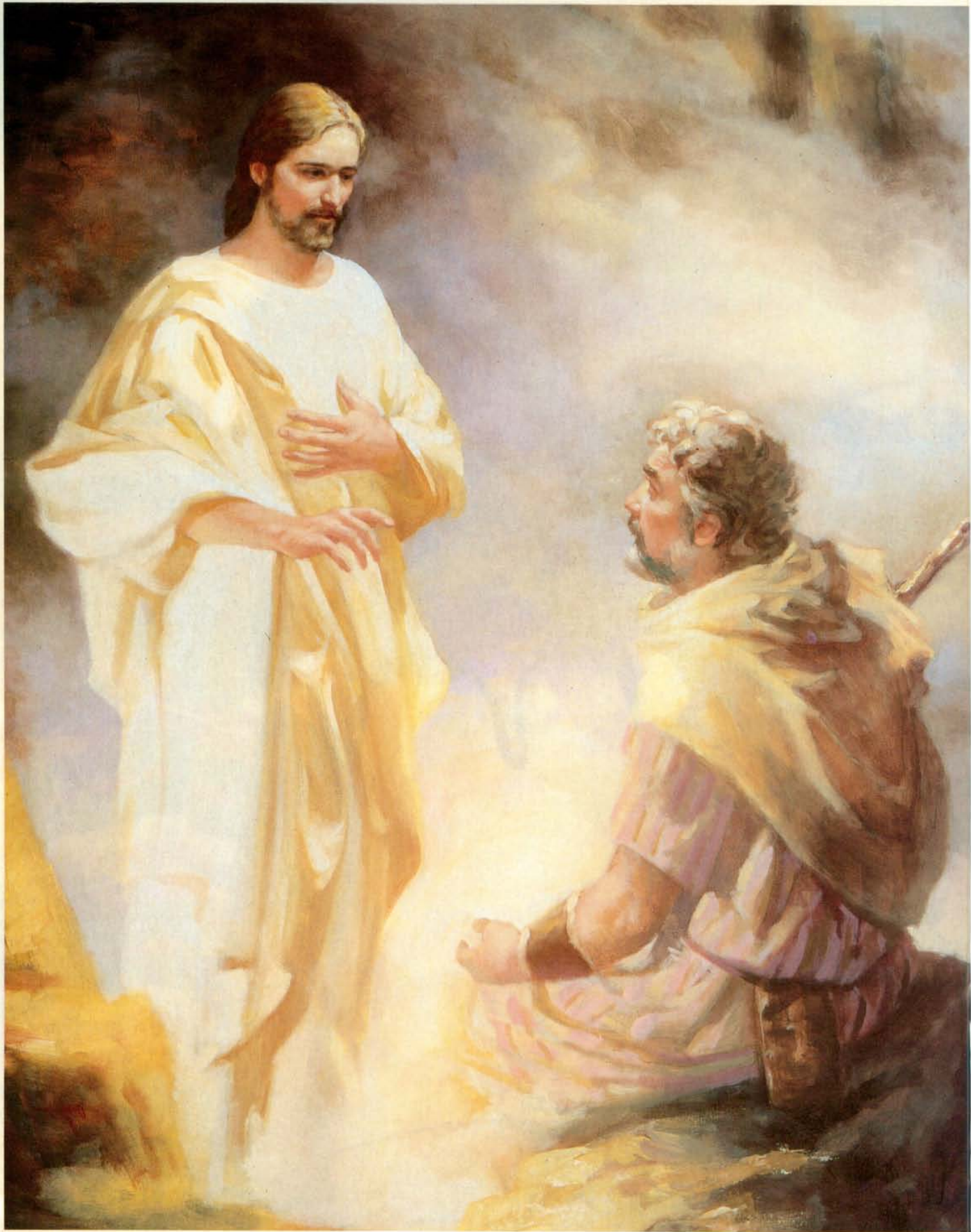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 날은 수업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리잘 고등학교 학생들인 패시그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은 어떤 지역의 와드 집회소에 모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이 끝나자 그들은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먹거리를 샀습니다. 그들이 패시그의 붐비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소다수와 사탕을 사고 있는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패시그 스테이크 청소년들과 친해져서 그들이 믿고 있는 것과 생활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에게서 남다른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닐라 처럼 대도시에 자리를 잡고 있고, 세계적인 기록을 등재한 기네스 북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생수가 많은 큰 규모의 학교에서는 자칫하면 밀려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자신이 가고자하는 곳을 모를 경우에 일어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방패이자 힘의 원천임

디 켈리 옥든

촬영: 스티브 번더슨



평일에는 할 수 있는 일은 왜 일요일에

○는 하지 못할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는 대대로 되풀이 되어 온 의문 사항이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어린 어린이들만의 의문이 아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어느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언제나 안식일이 실제로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안식일은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주중의 하루로 여겨져요. 저는 안식일이 되면 가족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정들을 보아 왔습니다. 이 때문에 반발심이 자라는 것 같아요.”

한 귀환 선교사도 이 말을 인정했다. “저는 선교 사업을 마친 후로는 영적인 발전이 없어 고민하고 있어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당연히 지켜야 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제가 믿기로는 안식일에는 단지 3 시간 동안 집회에 참석하고, 상점에 가지 않고, 직장에 가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는 회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금식 주일에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합당하게 지키는 건지 무척 혼동이 돼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되풀이하여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제정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안식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활동이 안식일에 적당한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 이런 의문들에 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자.

경전의 가르침

하나님께서서는 지구를 창조하시고 쉬셨던 날, 곧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히 하셨다.(창세기 2:2~3 참조)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그날의 중요성에 관해 거듭 설명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애굽기 20:8)라고 말씀하셨다. 이 “기억하라”는 말이 중요하다. 우리는 대체로 주님과 주님의 사업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매일 상기시켜 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 기도와 경전 공부 같은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밖에도 너무나 쉽게 최우선 순위에 오를 수 있는 세상사를 잠시 접어두고 하루쯤은 종일토록 하나님에게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집중시킬 필요도 있다.

안식일은(Sabbath: 새버스) 히브리어로 “휴식” 또는 “근로의 중단”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일을 중단하고 쉬는 차원을 넘어, 이 날을 성결케, 즉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그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해야 한다.

모든 시대를 위한 율법

고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7일 중 하루를 일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날로 성별 하는 민족으로 알려졌다.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언약[으로]...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이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왼쪽 그림: 그레그 케이 올슨, 니사렛 회당에 서신 예수님, 오른쪽 그림: 그레그 케이 올슨, 내 영의 권세로 인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사이에 영원한 표징”(출애굽기 31:16~17)이라고 말씀하셨다. 안식일의 법을 거역하면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출애굽기 31:14~15, 35:2; 민수기 15:32~36 참조)

오늘날에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면 이스라엘 진으로부터 절단되었던 것처럼, 현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일의 율법을 고의로 어기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단절되며 일종의 영적인 사망을 겪게 된다.

신약 성서 시대의 유대인들은 안식일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백성으로 알려져 있었다. 예수님 일행이 안식일을 더럽혔다 하여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았을 때, 예수님은 그 옛날 그분이 친히 주었던 율법마다 자질구레하고 과도한 군더더기를 덧붙인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마태복음 12:8)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마가복음 2:27)

구세주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가를 모범으로 보여 주셨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마태복음 12:10~13 참조),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관리하셨으며, 슬픔을 덜어주시고, 심지어 위협에 빠진 생명을 구해(누가복음 13:11~16 참조) 주시기가까지 하셨다. 이처럼 우리도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누가복음 14:5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을 합당하게 지키는 것이 다른 복음 원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형태로든 안식일을 범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최대의 사건이었던 창조주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한

주의 첫 날”(사도행전 20:7 참조)인 “주님의 날”(요한계시록 1:10)을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했던 것이다.

말일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므로써 주님께 대한 사랑을 보일 것을 여러 차례 촉구 받아 왔다. 그 한 예로, 1993년에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은 권고를 했다.

“우리는 말일성도들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 해이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의식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물건을 사거나 기타 상업 활동과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삼가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행위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말일성도들이 거룩한 이날을 모든 세상적인 활동으로부터 성별하며, 예배와 감사와 봉사의 영을 가지며 안식일에 합당한 가족 중심의 활동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성결케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식일 활동이 주님의 뜻과 영에 부합되게 하려고 교회 회원들이 노력할 때, 그들의 삶은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앤사인, 1993년 1월호, 80쪽)

안식일에 관한 지침

고대나 현대의 예언자들은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전부 가르쳐 주지 않고, 대신에 지침 역할을 할 성구들을 제시해 주었다. 예언자들이 제시한 성구의 일부를 살펴보기로 하자.

예언자 이사야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아름답고 평이한 말로 표현한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 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이사야 58:13)

주전 5세기에 페르시아의 유다 성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개혁을 과감하고 활발하게 추진했던 영적이며 겸손한 행정가였다.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의 지도하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서약을 비롯한 순종의 언약을 맺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느헤미야 10:31)

일부 상인들이 안식일에 계속 영업을 하자, 느헤미야는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가를 보여 주었다.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 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느헤미야 13:17~19)

최근에 나는 구약전서의 이 상황과 비슷한 현대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어느 한 말일성도 부부가 장사가 그리 잘 되지 않는 식당을 구입하였는데, 그들은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그들이 이 식당을 구입하기 전에는) 일요일이 식당에 손님 가장 많은 날 중 하루였다. 따라서 식당을 구입할 때 돈을 빌려 준 가까운 친구를 비롯하여 몇 명의 이는 사람들이 일요일에도 영업을 계속하라고 강력히 권하였다. 이 말일성도 부부는



일요일에 영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놓고 몹시 고민을 하였다. 사업 논리상, 일요일에 식당을 닫는다는 것은 성공적인 영업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식당을 닫기로 결정하였고 자신들의 신앙을 좇아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사업에서 몇 달 간 매상이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였고, 그 후에도 꾸준히 성장하였다.

이 부부의 체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봐도 우리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보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모세 시대에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전 날에는 만나를 두 배 주시고(출애굽기 16:29 참조), 제6년에는 제7년 분과 제8년 분을 포함하여 3배의 수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레위기 25:3~7, 20~22) 이처럼 주님께서서는 현대의 식당에서도,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매상을 높여 안식일에 문을 열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만큼, 아니 그 이상까지라도 보상해 주실 수 있다.

물론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재정적인 축복을 받

“가장 높으신 이에게 예배드리(라)... 이날에는 다른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정성을 다하여 식사 준비만 하여... 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할지어다.”



그림: 델 락슨,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복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내하여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악으로부터 보호하심

오늘날 주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영적인 타락을 초래하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



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을 이렇게 바꾸어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교리와 성약 59:9)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부도덕, 모반, 가족의 조직 및 안정성의 저하, 기타 영적인 위험 요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영감 받은 계획이 여기에 있다. 즉 안식일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함으로써, 자주 회개하고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흠없게 지키겠다고 주님께 언약하는 것이다.

주님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이날은 네 일을 쉬고 가장 높으신 이에게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59:10) 만일 우리가 안식일에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날 곧 주의 날에 너는 네 형제와 주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네 헌물과 네 성찬을 가장 높으신 이에게 바치는 것을 잊지 말라.”(교리와 성약 59:12) 여기서 헌물이란 시간이나 재능, 혹은 재산을 하나님과 동료를 위해 바치는 것을 말한다. 이 성구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모든 것을 바칠 뿐만 아니라 주님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의 종에게도 역시 죄를 고백한다면, 보호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주님은 또 그분의 거룩한 날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계신다. “이날에는 다른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정성을 다하여 식사 준비만 하여 네 금식이 온전한 금식이 되도록, 바꿔 말하면 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할지어다.”(교리와 성약 59:13) 바로 이것이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예이다. 즉 식사 준비를 간단하게 해놓고, 세상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만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생각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크 이 피터슨 장로는 일찍이 “이날에는 다른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라는 계명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우리가 일요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만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날을 바치기로 해야 하는데도 우리가 안식일을 기꺼이 사업 운영에 바치고, 그와 같이 일요일에 하는 직종을 후원하며, 일요일에 오락 장소에 간다면, 우리의 사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사회에는 병원과 같이 24시간 움직이는 특정한 직종이 있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직업인들이 아니므로,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요일에 교회에 가기보다 스키나 수영을 하러 혹은 영화를 보러 가거나 사업을 하러 하지 않습니까? 대답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이러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신



앙에서 떨어져 나와 일요일에 즐기고 돈을 벌지는 다른 복음을 채용한 것이 아닌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는 태도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내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표적이 된다고 힘주어 역설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개심한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는 곧 알 수 있습니다.”(대회 보고, 1974년 4월호, 218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는 안식일을 합당하게 지키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안식일은 우리가 합당하고 성스러운 일을 하는 거룩한 날이다. 일과 오락을 삼가는 것이 중요하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안식일에는 건설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여야 하며, 안식일에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공과를 준비하며, 복음을 공부하고, 명상하고, 병자를 방문하고, 수면을 취하며, 건전한 책을 읽고 그날 갖는 모든 교회 집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할 때, 태만 죄를 범하게 된다. (용서가 낡는 기적, 1975년, 94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톱 페리 장로는 우리의 옷차림조차도 우리의 마음가짐과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였다. “나는 종종 가장 좋은 옷을 일컬어서 ‘일요일의 최상급 옷’이라고 한 옛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옷차림이 평상복 수준으로 저하되게 되면, 행동 역시 그 옷에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교회에 갈 때 입을 옷을 온 종일 입어야 한다거나 또한 안식일에 합당하지 못한 옷을 입어도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성도의 빛, 1985년 1월호, 19쪽)

축복의 근원

진실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커다란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너희가 감사와 유쾌한 마음과 얼굴로 이 일을 하면... 땅에 충만한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요... 땅에서 나

“안식일은 합당하고 성스러운 일을 하는 거룩한 날이다.”



그림: 그레그 케이 올슨, 그리스도께서 아이로의 말을 일으키심

오는... 좋은 것”(교리와 성약 59:15~17)도 그러하니라.

축복은 때로 곧바로 오지 않을 수 있다.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 어려운 희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그날의 영에 합당한 일로 채운다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히 약속되어 있고... 모든 일은 함께 작용하여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98:3 참조)

몇 년 전의 일이지만, 브리감 영 대학교 예루살렘 센터에서 공부했던 여학생 한 명이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 곧바로 내게 편지를 보내 온 적이 있다. 그녀는 안식일에 근무해야 하는 것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를 편지로 호소했다. “일요일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을 사장님에게 말씀드려야 하는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안식일에 근무를 해도 아무렇지 않았지만, 안식일의 율법에 관해서 알게 된 후로는 안식일에 근무하는 것을 도저히 정당화할 수 없답니다.”

그녀는 사장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했다. “사장님은 저에게 매우 친절하였고, 평생 그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에게 일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자매가 용기를 내기까지는 금식일을 포함하여 3일이 걸렸다. “제가 바란 모든 것은 단지 사장님이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저는 평화의 상징인 목각 올리브 나무를 가지고 갔답니다. 물론 예루살렘과 제가 이스라엘에서 했던 일들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근무할 수 없는 이유를 그분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화는 마침내 직장 문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몹시 조바심이 나고, 목소리도 약간 떨렸지만, 저는 마침내 마음에 담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성령이 거기에 임

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목이 메어 말씀조차 제대로 못하셨으니까요. 사장님은 저의 결심을 존중하며, 제가 신님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자신의 신조는 저와 다소 다르며,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해야 하고, 따라서 모든 직원들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분은 저더러 자기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말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둘 다 그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무거운 짐을 벗은 것처럼 활기찬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직장이 없지만, 괜찮습니다. 무언가 이루어질 테니까요.”

미래(복천년)의 안식일- 오늘날에도 그런 안식일을 누릴 수 있음.

말일성도들은 복천년에 대비해서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거룩하게 지키려 할 것이다.(교리와 성약 88:29) 복천년에는 시온에서 어떠한 안식일이 이루어지겠는가?

현재까지의 모든 기록으로 미루어볼 때, 주님의 날에는 육체적인 노동이 없을 것이고, 영업 행위나 물건 구매 행위가 없을 것이며, 스포츠나 기타 오락 행사가 없을 것이다. 시온의 백성들이 시간의 근무를 하거나 밤새도록 지새우는 일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안식일에 피로에 지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성도들은 교회 모임에 참석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또한 가족과 더불어 경전을 공부하고 상고할 것이며, 마음을 고양시켜 주는 독서를 할 것이다. 또한 성도들이 개인과 가족 역사를 쓰고, 상한 마음을 격려하고 병자를 방문할 것이며, 가족 역사 사업과 선교 사업을 행하고, 노래하고 고상한 음악을 들으며, 그 밖에 주님의 영이 주는 감동에 따라 여러 활동을 추구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성도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의 축복을 틀림없이 맛볼 것이다.

이러한 안식일의 풍경이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은가?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미래의 복천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우리는 오는 일요일에도 현실화시킬 수 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는 순종이 가져오는 축복을 당장에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폭력에 대하여 경계함









해롤드 옥스

다름, 그 중에서도 특히 폭력은 우리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니파이삼서 11:29~30 참조) 불행하게도 텔레비전, 비디오, 영화, 그리고 전자 오락들은 그와 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화와 어린이들을 위해 나와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조차도 폭력을 아주 신나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아무도 그것으로 인해 정말로 해를 입지는 않으며 어떠한 의견 차이도 카라테(일본의 호신술)식 발차기나 특정 무기의 사용으로 전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수천 개의 연구들이 화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 장면과 그 폭력물들을 보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더욱더 공격적이 되었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노를 터뜨려야 한다고 가르쳐져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졌습니다. 또한 폭력의 중독적인 성질은 잔인한 행동들을 보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직접 참여코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폭력성 때문에 우리는 대중 매체 폭력이라는 사악한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  폭력은 고통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이해한다. 폭력은 우리가 웃어 넘길 일이 아니다.
-  폭력적인 행동의 결과를 살펴본다. 희생자와 공격자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
-  자제심과 인내심, 관용, 성숙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표본으로 삼는다(잠언 15:1, 18:1, 고린도전서 13:4~5 참조)
-  집에서 대중 매체를 주의 깊게 검토해 본다. 예를 들어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떤 것들을 시청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폭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뉴스에 나오는 폭력 사건도 포함된다.
-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텔레비전 시청 중에 "이 사람이 이 방법 말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한다.
-  성인용 영화나 다른 부적합한 자료들을 피하기 위해 예언자의 권고를 따른다.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지방부
안타나나리보 제1지부

선교사로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
문경을 읽고 그것이 주는 가르침에 대
해 상고하고 주님께 이 메시지가 참된
것인지를 간구할 것을 늘 강조합니다.
어느 날, 엘마서 17장 2절에서 3절의 말
씀을 읽던 도중 저는 모사이아의 아들
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연구한” 다음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가르
칠 수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저
는 더욱더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
었으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에 대한 저의 간증을 강화시켰습니다.



레오니다스 마시야스 이즈퀘
르도 장로
에콰도르 키토 선교부

전 어머니께서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표준 경전 합본을 주셨을 때 그렇게 씩
기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
지런히 상고하기 시작한 후부터 제 인
생에 있어서 경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
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편이
나 잠언, 그리고 전도서에 나오는 시와
같은 구절들에 탄복하게 되었으며 아브
라함의 신앙에 사로잡히기도 했고 메시
야의 오심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웅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
전 안에서 찾아야 할 것들이 아주 많
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에브가일 에스 디즌
필리핀 컬레이프 지방부
컬레이프 지부

우리가 각 구절을 읽을 때 왜 이것
이 쓰여졌는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될 것입
니다.

적절한 자료들을 사용하여 경전을 공
부하기 전이나 경전 공부를 한 후에 기
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경
전을 읽을 때 그 속에 나와 있는 따옴
표, 쉼표, 마침표 등도 역시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오바니니 질리오토
브라질 브라질리아 타구아팅
가 스테이크
타구아팅가 제 2와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경전을
매일 매일 연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
게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앤소니 엘 실베리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테이크
로테르담 제 2와드

경전에서 찾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
스도의 복음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리와 성약

98편 12절의 말씀은 충실한 사람들에게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
고” 그것이 “옳은 일인지”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우리 앞에 밝혀
질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9:8)



엔젤라 바르가스 자매,
21세
이탈리아 로마 선교부

독자 여러분이 아래 질문에 대답한다
면 절의 응답란은 한층 유용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을 1998년 7월
1일까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3223 USA. 각자 자기 나랏말로 깨끗
하게 쓰거나 타자를 해서 보내셔도 됩
니다. 대답과 함께 여러분의 성명, 나이,
거주 도시, 와드와 스테이크(지부와 지
방부)명을 적어 보내 주십시오. 가능하
다면 여러분의 사진도 동봉해 주십시오.
사진은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보내
주신 대답 중 대표적인 것을 골라서 실
게 될 것입니다.

질문: 저는 제가 받은 모든 축복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의 기도
에서 그것들을 일일이 나열한다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
면 제 기도가 매일 똑같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

을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저의 간증은 기도와 헌신으로 경전을 탐구할 때 점점 커져나갑니다. 제가 얻은 지식은 위대한 축복의 원천입니다.



네우마 셀레네 사라이바 리마, 28세
브라질 포르탈레자 스테이크 메세야나 워드

경전을 부지런히 탐구한다는 것은 경전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취하고 그것에 대하여 명상하고 상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읽고 연구해야 하며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 원리들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또한 경전에 대한 간증과 여러분이 찾고 있는 응답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대로 행한 요셉 스미스처럼 경전에서 진리를 찾고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더 훌륭한 예는 없을 것입니다.

찰스 렘보랄슨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지방부 안 타나나리보 제1워드

우리는 경전을 탐구하고 구세주와 구원의 계획에 대한 예언자들의 간증을 읽을 때 신앙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참 뜻을 가지고 매일 경전을 읽는다면 위대한 축복을 약속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는 경전을

상고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계시와 예언의 영을 지녀 이러한 증거를 가짐으로 하여 소망을 얻으며 우리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 경전을 상고하며 그 속에 나온 원리들을 우리 삶 속에 흡수시키는 것은 사탄의 손아귀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경전을 탐구하는 것은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데니스 오마 바르가스 카나후이
과테말라 케탈테낭고 엘 보스케 스테이크 산 그리스토팔 토토니카판 지방부

저는 경전을 공부하면서 얻은 지식을 매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를 더욱 더 가까이 느끼게 하며, 그것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레드릭 시 부세니아
필리핀 산티아고 지방부 디푼 지방부

경전은 저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참되며 그것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저의 간증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경전은 저에게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가는 동안 어디로 가야 할 지,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으며, 권고가 있으며, 사랑이 있으며,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더욱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영의 인도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프란체스카 레이몬도, 23세
이탈리 베르첼리 지방부 노바라 지방부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를 해야 할 때는 목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는 물론경이나 표준 경전 중에서 하나를 읽습니다. 제 자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경전 속의 사람들 중 하나라고 상상하면서 그들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합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모든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비에 알레안드로 코로나티 아르헨티나 벨 빌 지방부 벨 빌 지방부



경전의 주요 목적은 우리의 삶 속으로 진리와 영적인 평안,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데 있습니다. 피상적인 경전 읽기는 우리를 혼돈과 실수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경전을 읽기 전에 기도한다면 성신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린다 안드리아미사말랄라, 24세

의 영감을 받고 자신의 문제들에 대한 대답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영감을 받는 것에 정말로 관심을 가질 때가 바로 경전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독자들의 대답:

우리는 경전을 부지런히 상고하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우리에게 알려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니파이 일서 10:19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경전을 상고하는 목적이 진리를 알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읽어서는 안되며, 그것에 대해 깊이 상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경전의 진실성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에이치 키오아
장로
통가 누쿠알로파 선교부

주일학교 12~14반에서는 경전 공부 를 경찰이 집을 수색하는 것에 비유했 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들어가 증거물을 탐색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 도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경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강화 시키고 간증을 심화시키는 지식을 찾습 니다. 또 우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흥 미 있는 사람들이나 사건들에 대하여 읽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우리의 삶 모 두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

지와 구세주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 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 더 그분들과 같이 되기 위해 해야 하는 것 에 대하여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경전에 있는 모든 구절에는 어 떤 이유가 있으며 언제나 우리 자신에 게 적용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는 사실을 배워 왔습니다.

주일학교반의 청소년

스웨덴 스테이크 보라에 와드

일상 생활에서 어려움에 당면하게 될 때마다, 저는 해결책과 위안을 찾아 경전을 펼칩니다. 경전은 그 곳에서 배운 교훈들을 실행에 옮길 때 정말로 큰 도움 이 됩니다. 제가 날마다 영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알렉시아 호우 차드
뉴 칼레도니아 지방부
노우 미아 제1지방부

경전을 부지런히 찾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진리에 대한 지식과 바꿀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스텔라 테호이리

아우스트랄레스 투바이 지방부

마타우라 지방부



선교사 토론을 받는 동안, 저는 몰몬경에 대하여 많은 의심을 갖고 있었습 니다. 그러나 모로나이서 10 장 3~5절의 약속을 기억 하면서 오랜동안의 탐구와 명상 후에

영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으며 그때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복음 선교사로서 이 진리를 간증할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합니다. 봉공파시 장로

아이보리 코스트 아비잔 선교부

우리는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복음에 대한 지식과 간증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지식을 계속 머리와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들도 개발시킬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경전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였고 또한 관련된 주제도 파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단어와 구절의 정의를 파악 하였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오늘날에 와서 그 의미가 똑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성서 사전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건들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를 들어, 엘마서 32 장에서는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는 것이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것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엘마가 약속한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배워야 할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저는 성구에서 언급되는 사람의 이름 대신 제 이름을 넣어 봄으로써 그 성구를 저의 것으로 만드는 것

우리는 경전에서 무엇을 상고해야 할까요?

경전은 우리가 그것을 부지런히 상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매일 저녁 경전을 읽습니다만 무엇을 상고해야 할까요?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교회의 교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대답:

경전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것이 아니요, 나의 것이니... 나의 음성으로 너희에게 이 말을 하노니, 이 말이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들었고 나의 말을 알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18:34~36)

여러분이 복음 원리와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해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영은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속에 넘쳐흐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경전이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니파이이서 32:3) 침례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경전을 연구하고 영감을 위해 간구할 때 개인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니파이이서 32:4~5 참조)

여러분이 경전에서 상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며 경전을 상고해야

하는 이유도 많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특정한 복음 주제에 관한 정보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영을 느끼고 경전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은 그 시기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러내 보이길 원하시는 것만을 찾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더 배우기 위해 언제든지 경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상고가 더욱 효과적인 것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경전을 자신에게 적용시킨다. 니파이처럼 우리도 "경전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 줄을 알" (니파이일서 19:23)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니파이삼서 18장 15절과 같은 구절에서 '너희'라는 말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여러분의 이름)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행여 마귀가 너희를 꾀어 사로잡을까 염려함이라."

경전을 규칙적으로 공부한다. 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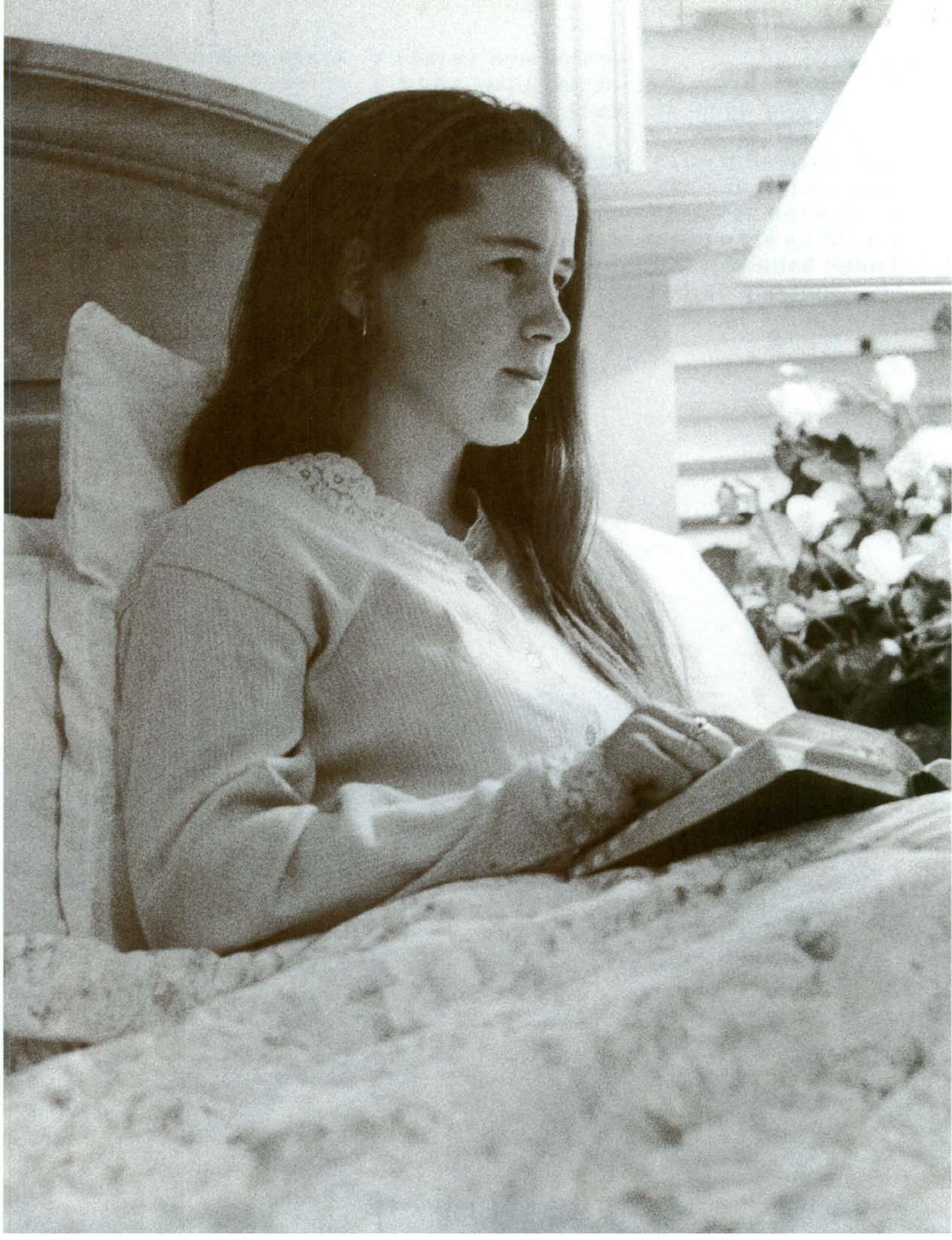
을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여러분이 필요할 때 경전으로부터 더 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찾고 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안내해 줄 경전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공부 자료, 즉 색인, 각주, 지도, 참조들을 활용하십시오.

연차 대회 말씀을 공부한다. 여러분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예언자나 다른 총관리 역원들이 경전 구절을 활용했거나 설명했던 방법들을 찾아보십시오.

교회 잡지를 읽는다. 교회 잡지에는 여러분의 복음 공부를 더 알차게 해줄 좋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읽었던 것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여러분의 정신을 고양시킬 만한 것이 있으면 경전을 펼쳐서 방금 읽은 것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내십시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다. 부모님이나 교회의 지도자, 세미나리 교사들, 가정 복음 교사,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와드의 다른 회원들이 경전에 대한 특별한 식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전이 가르치는 원리들을 그들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귀중한 교훈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식견과 교훈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전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진 것입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자신만



선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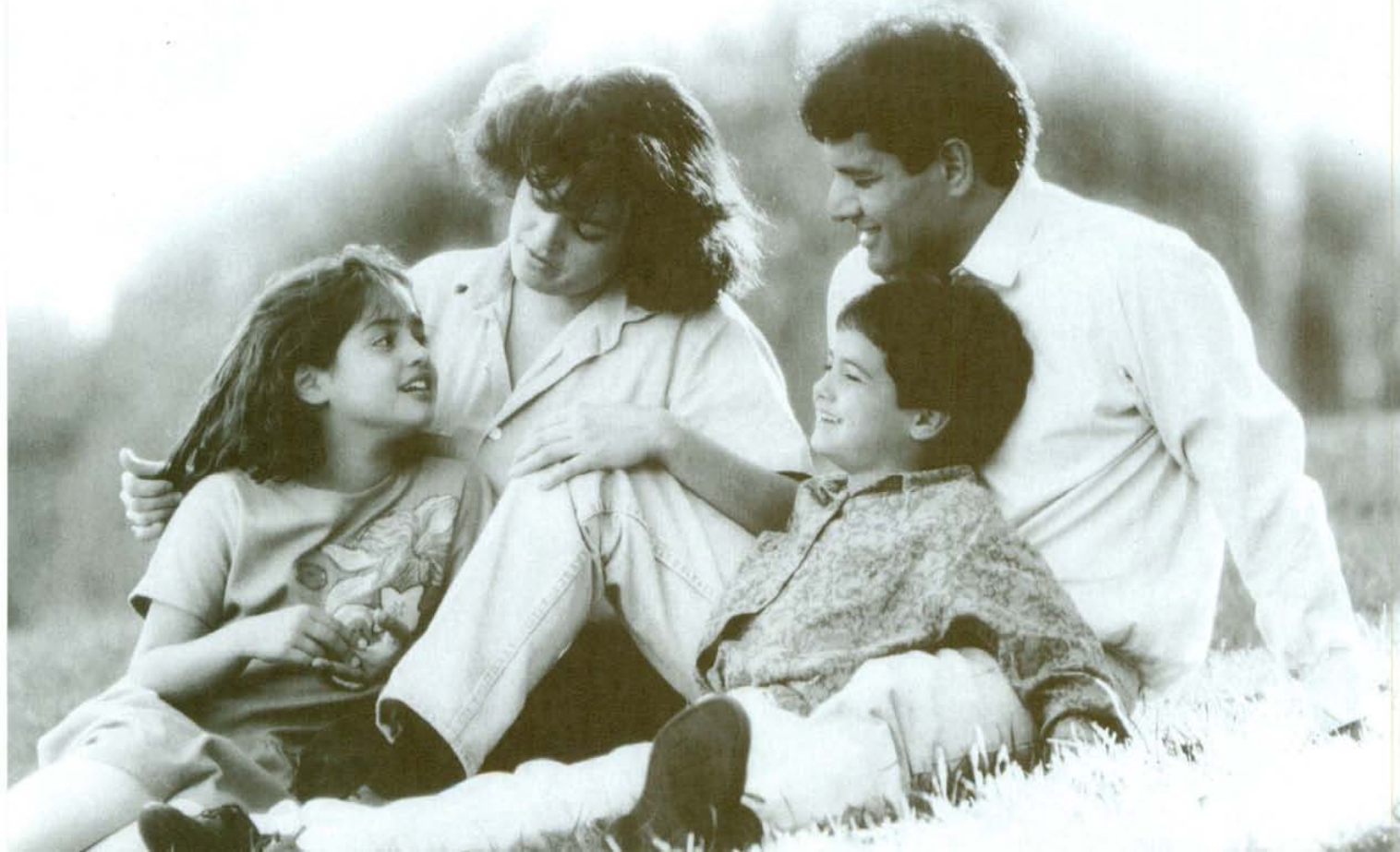
“저는 모든 젊은이가 선교사로 봉사할 목표를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일을 행함에 있어 어떤 방해물도 허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주님의 수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땅히 함께 일해야 합니다.”(1996년 7월 14일,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 청소년 모임)

사업은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은 전진해 나갑니다. 사람들의 신앙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도록 위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150개국에 걸

쳐 교회를 설립했으며,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거기엔 신권을 소지한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고, 위대한 신앙과 능력을 지닌 여인들이 있으며, 천사들과 같은 합창대의 젊은이들과 기도하는 사람들, 지체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사람들,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들, 마음을 다해 이 사업의 신성함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1996년 5월 19일, 일본, 오사카, 지역대회) □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통찰력과 권고의 말씀



교회가 회원들에게 기대하는 것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이 하나님을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간증을 지니시길 기대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간증이 없다면 우선 이 첫번째를 이루십시오. 둘째, [교회]는 여러분 개개인이 신권에 충실하길 기대합니다. 대관장단을 비롯하여 십이사도 정원회, 칠십인에 이르기까지 그 직분을 얻으려고 열망하는 역원은 이 교회에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지혜의 말씀대로 생활하며, 알코올 음료를 삼가고 담배 사용을 금하며, 홍차나 커피 사용을 삼가도록 기대 받고 있습니다. 넷째, 교회는 우리에게 십일조를 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바로 이 율법대로 생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섯째, 모든 남자들은 자기의 아내를 하나님의 딸, 즉 나란히 걸어가는 동등한 반려자인 하나님의 딸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여인을 열등한 위치에 두지 않는 개념이야말로 기적인 것입니다. 어느 위대한 분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중에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은 아무것도

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과 존경과 친절로 대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남편을 사랑과 존경과 친절로 대하십시오. 여섯째, 교회는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석하길 기대합니다. 거기서 그 모임의 영을 느끼며 성찬을 들고 주님과 맺은 성약을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1996년 11월 14일, 브라질, 상파울로, 노변의 모임)

사회의 세속화

“저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가 다음에 올 세대를 위해 우리가 누렸던 선과 힘을 전수해 줄 사회의 경이로운 요소들과 생활 태도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얘기해 왔던 일부 사회적 병폐의 징후를 볼 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우리들에 대해 관찰한 바, 부패의 중요한 요인은 우리 조상들이 알고,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기대했던 하나님을 포기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명백히 눈에 띄는 세속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가정

생활의 붕괴요, 자기 수련의 쇠퇴며, 전능자에 대한 모욕이요, 관대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그토록 많은 축복을 받아 온 사람들이 해서는 안될 오만함입니다.”(1996년 8월 4일, 유타주, 프로보, 개척자 100주년 지역 사회 봉사 모임)

아버지의 의무

“이 작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며, 여러분은 그들의 관리자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부모가 되기 전의 부모였으며, 이들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친권과 관심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제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피십시오. 아버지 여러분, 현재나 미래에 어느 날이건 여러분의 기질을 조절하십시오. 어머니 여러분, 목소리를 조절하고 낮추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으로 영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자녀들을 훈육하고 사랑하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을 그들이 할 시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또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이 노력하는 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1996년 11월 3일, 솔트레이크 대학교 제3스테이크 대회)

성약을 맺고 복음 의식을 받음으로써 시온을 건설함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나 부를 떠나 서부로의 험난한 여로를 앞둔 그 전날 밤 성전 축복을 받고자 성전을 가득 메운 교회 회원들에 대해 말하였다. 그에 따라 브리감 영 대관장은 성전을 밤늦도록 열고서 의식을 집행케 하였다.(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18쪽 참조)

말일성도에게 주어진 성약과 의식에서 순종과 희생, 순결과 헌납이라는 복음 원리는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도들은 이 같은 성약을 맺음으로써 시온으로 향해 가는 그들의 여로를 견뎌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시온으로 함께 여행함

초기의 개척자들처럼, 성약과 복음 의식을 받으면, 우리 또한 시온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왜냐하면, 시온이란 장소를 지칭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다.(교리와 성약 97:21 참조) 우리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 아들의 성신권의 의식”을 받음으로서 여행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영 대관장은 가르쳤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1997], 112쪽) 이러한 의식은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성전 의식을 통해 그 절정에 이른다.

우리는 의식을 받음으로써 개인적으로 보다 청결해질 뿐만 아니라, 한 백성으로써 더욱 단합할 수 있게 된다. 예복

의 시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음이더라.”(모세서 7:18)

개척자들의 대부분이 미국의 서부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한 마음 한 뜻에 의한 단합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도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고 부대로 편성되었다. 여행하면서 그들은 마차 행렬에 실은 자원을 모두 똑같이 나누어 썼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는 고생을 하지 않게 되었다.(교리와 성약 136:6~8)

여행은 희생을 필요로 함

당시 13세였던 메리 고블 패이의 가족은 여러 마리의 소가 끄는 마차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두 개의 손수레 부대와 함께 여행하기로 약속하였다. 손수레

는 대체로 소가 끄는 마차보다 빨리 나아갈 수 있지만, 때 이른 눈보라가 엄습해와 개척자들의 힘이 부치기 시작하면서 황소팀은 앞서 나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손수레 부대를 앞지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즉시 도울 수 있도록 그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여행을 했다.”고 메리는 적고 있다. 복음 성약이 있었기에 그들은 “기꺼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하려 하였습다.(모사이야서 18:8~10 참조)

커다란 희생을 치루어 가며, 그들은 성약을 지켰고 손수레 부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메리의 여동생, 남동생, 및 어머니는 혹독한 날씨, 질병 및 영양 실조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메리 고블 패이의 자서전,” 신앙을 가진 사람들: 말일성도 문헌[1974], 143~145쪽)

평생 동안 계속되는 여행에서 마차 대열의 앞에서 가는 사람도 있고 후미에 처져서 가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행군 부대나 조건을 선택할 수 없겠지만, 성약을 맺고 지키고 복음 의식을 받음으로써 부대에 합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 시온의 자매들인 우리는 시온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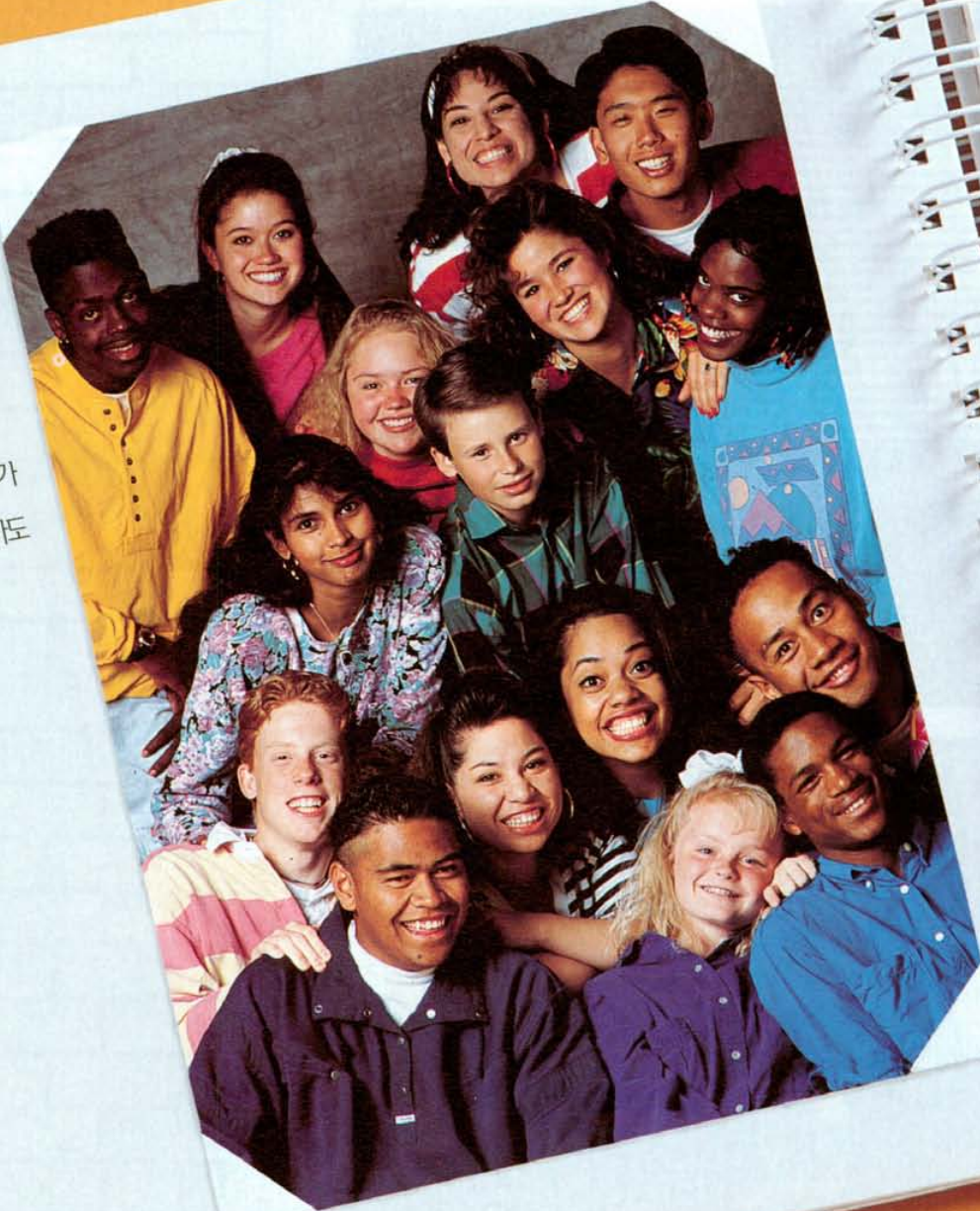
•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는 것이 우리가 정결케 되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 다같이 협력하여 시온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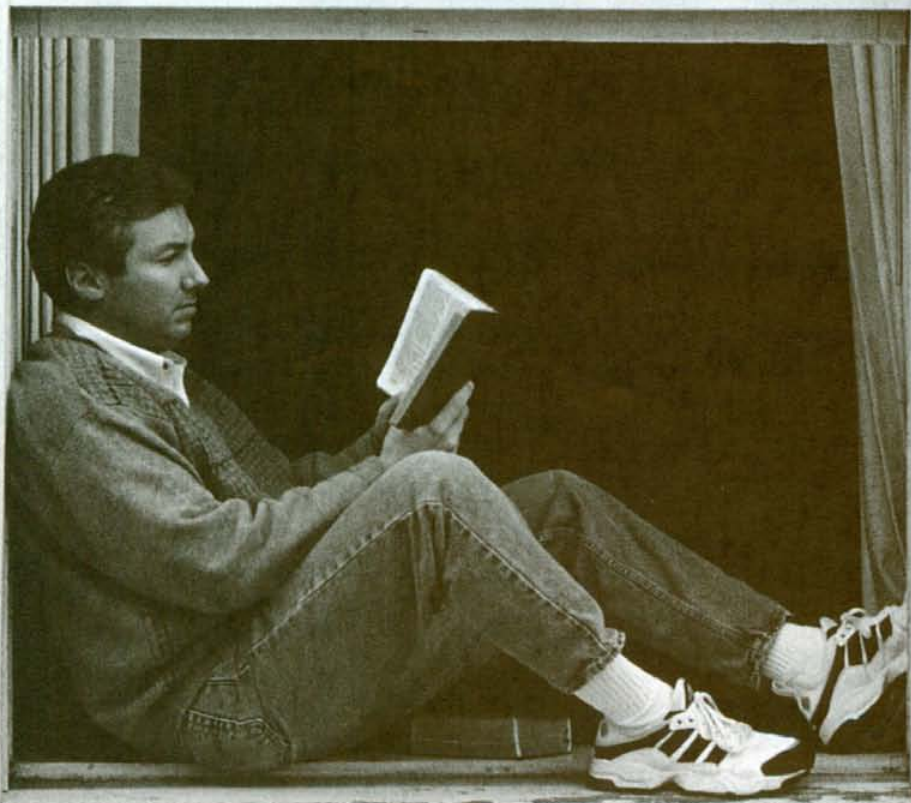


가족 사진

나눔께서는 여러 인종들
을 창조하셨지만 인종주의
를 만들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아버지
의 자녀들입니다.
폭력과 증오는 그분의 가
족 안에는 없습니다.(사도
행전 10:34 참조)



다시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말한다

활동적인 말일성도 대다수는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이나 가족 회원들이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갈망한다. 우리가 활동이 저조한 형제와 자매 및 그들의 필요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활동화 과정에 깊이 관여하여 온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볼 수 있다.

흔히, 우리가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에게 주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나 필요로 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한 예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온전히 활동화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참되며 살아 계신 예언자에 의해 이끌어 지고 있다고 믿고는 있지만,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조직된 종교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 일부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은 복음대로 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확연히 드러나는 약점을 지닌 다른 회원들에 대해서, 또한 어찌면 자신들을 모른 척 한 듯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여되어 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한다. 한 예로 어느 여성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담배를 피우는 데, 회원들이 담배 피우는 온갖 나쁜 사람들에 대한

돌아옴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말한다.

로 그들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해야 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개종시키려 든다.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 갈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새롭게 쌓도록 도와야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가르치려 들기도 한다.

이러한 결론은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과 그들의 재활동화를 돕는 일에 깊이 헌신한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되었다.

회원들의 활동이 저조해 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교회 회원들이 그들의 일생에서 어느 기간 동안 교회에서 저조한 활동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복음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다시 온전히 활동화된다. 어렸을 때 복음의 가르침에서 멀어졌던 한 남자가 이렇게 회상했다. "언제나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제 행동이 잘못되었고 교회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게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형제와 같이 활동이 저조한 수많은 회원들은 이 복음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간직하고 있으며, 내심으로 자신을 스스로를 말일성도로 여기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읍시다. 저는 그들의 눈에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활동이 저조한 말일성도들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바꾼다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외면할 것을 두려워한다. 혹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야망에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교회 활동을 위한 시간을 거의 내지 못한다. 일례로, 일 때문에 가정과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야 했던 한 사람은 자신의 가족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빈번히 일요일에 교회에 가기보다는 한정된 자신의 자유 시간을 가족과 함께 휴양지에서 보내는 것을 택한다고 말한다.

친구의 역할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 중에는, 실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활동 회원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 대다수가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아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활동 회원들은 대개 교회 모임이나 활동에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과 가장 친밀한 친구 관계를 이룬다. 그 결과, 활동이 저조한 일부 회원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고 결론 짓는다.

사랑이 넘치는 우정은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데려오는 데 필수적이다. 예전에 자신도 활동이 저조한 회원이었던, 어느 성공적인 가정 교사는 도대체 이 사람이 나에게 대한 관심을 갖고 있나? 하며 의아해 하던 그날들을 기억했기에 자신에게 가정 복음 교육을 하도록 지명된 사람들을 알기 위해 유념하며 시간을 보냈다. 또 다른 가정 복음 교사가 덧붙여 말했다. “때로 우리는, 나는 복음대로 살고 있어. 들어가서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을 도와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태도는 언제나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줄 강하고, 유능하고, 귀중하고, 훌륭한 사람임을 깨닫는다면, 홀연히 그들과 함께 노력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진정한 친구는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다시 데려 오는데 필요한 세 가지를 제공한다. 첫째, 신뢰와 확신을 다질 수 있는 수준의 헌신을 보인다.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이 반응을 제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정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둘째, 사랑에서 야기된 온정을 보인다. 셋째, 기꺼이 자신의 투쟁과 경험을 나누고 그 안에서 교훈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마음을 보인다.

장애물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은 사랑하는 친구의 도움으로 공통적으로 접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두려움. 활동이 저조한 대부분의 회원들은 교회에서 잘 어울리지 못할까 두려워 교회로 다시 오는 것을 꺼려한다. 그들은 다른 회원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알고는 자신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들은 복음 토론 중에 자신들이 무식하게 보일까 두려워하며 기초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의 무식함을 드러내 보이길 원치 않는다. 그들은 지혜의 말씀과 관계된 문제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을까 두려워한다. 한 여성은 자신의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무도 옆에 앉으려 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교회 모임 중에 마음 상했던 일을 기억했다. 활동이 저조한 많은 회원들은 말씀이나 공과 중에 자신의 문제를 상기시키는 피할 수 없는 조언을 듣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 한 이혼 여성이 긴 공백기를 거친 후 다시 교회로 돌아 왔을 때, 영원한 가족을 주제로 한 성찬식 모임이 자신이 최근에 겪

었던 어려움과 이루는 극명한 대조에 가없는 슬픔을 느꼈다.

또 다른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은 완전히 활동화된다면 부름에 휩싸이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일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다시 말일성도의 생활 표준을 지키지 못하게 되거나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남자는 그러한 두려움을 이렇게 피력했다. “현재 제 간증은 그 잠재 가능성에 대비해 4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중간에 서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다시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도 되지 않은 것에 제 자신을 두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신앙의 결핍. 때로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은 하나님과 일반적인 기독교 개념에 대한 신앙을 표명하지만 구체적인 말일성도의 교리 및 원리에 대한 신앙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교회와 그 교리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믿고 있지만 자신들의 간증이 약하다고 믿고 있다. 어떤 사람이 우려를 나타냈다. “제 간증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강한 시험을 받게 된다면, 제 간증이 버터내지 못할 것입니다.”

일부는 비극적인 사건이나 역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의 신앙이 저하되도록 내버려둔다. 한 여성은 아기가 죽은 후 오랜 몸부림의 기간을 회상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에게 고귀한 아이를 주시곤, 다시 빼앗아 가 버리셨는가 하고 그녀는 물었다.

일부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은 늘 활동적인 말일성도 회원 가운데 신앙이 결핍되어 있다고 말한다. “저는 교회의 기본 교리를 한번도 의심해 본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 내의 사람들을 불신합니다.”

활동이 저조한 일부 말일성도들은 활동 회원들이 위선적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이러한 논리를 편다. “저도 제가 반드시 되어야 할 사람은 못되고 있지만, 누구에게도 못지 않은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매주마다 교회에 가는 사람이라고 저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요.” 소외 혹은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이 이러한 감정을 종종 토로한다. 이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훈계에 따라 사랑이 함께 하기에 편안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스티브 번너슨 사진

발전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키우는 것이 활동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게도 베풀어 저야 한다고 말한다. (마태복음 5:46~47 참조)

온전함이 첫번째?

때로 활동 회원들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흔히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은 교회에서 완전히 활동적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먼저 거의 완벽해 저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또한 보다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이 성전 준비 반에는 때로 참석하지만 성전에는 가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들은 여전히 자

신들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낀다. 후에 감독이 된 어느 한 재활동화된 남자의 경우에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느끼기까지 성전 준비 반에 자신의 아내와 함께 일곱 번을 되풀이해서 참석하였다.

중요한 것은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이 자신들이 성스러운 성약을 훌륭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들의 확신과 간증과 교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소망을 강화시키는 것이 그들에게 의례적인 복음 가르침을 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은 구도자와 다르게 딱딱하고 추상적인 가르침을 회피하고, 격식이 없는 복음 토론을 선호한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은 낯선 사람에게 자신이 얼마나 알지 못하는가를 보여야 하는 난처함을 겪지 않고 친구들에게서 대답을 구할 수 있다. 친구 사이에 마음을 터놓고 하는 대화는



스티브 번덕슨 사진

사랑이 넘치는 우정은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데려오는 데 필수적이다. 참된 친구는 사랑에서 야기된 온정을 보인다.

잘못된 생각을 분명히 하며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교리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토론은 신권 정원회 회상, 방문 교사, 친구 또는 이웃 등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그가 자신의 삶에서 겪은 문제를 복음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극복해 나가는 것을 그들이 인식할 때 특히 유익하다. 다른 사람들을 재활동화 시키는 데 가장 유능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한때 자신들도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이었으며 복음에 충실히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낀다.

영의 감화

영에 의해 활동화가 이루어진다. 주님의 영이 미치는 영향력은 참으로 강하기 때문에 활동이 저조했던 수많은 회원들이 스스로 돌아 왔다. 형제, 자매들의 활동화 과정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활동적인 회원들은 바로 주님의 영이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협력자임을 보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활동화하는 데 성공적이었던 한 회원이 이같이 말했다. “그 일을 성취한 것은 영입니다. 저는 단지 영의 느낌을 좇아 말했을 뿐입니다.”

활동이 저조한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갈 때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 회원들은 자신을 준비시켜야만 한다. 성공적인 또한 회원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은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익히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올바른 말과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활동화로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한다.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기도는 하늘의 권세에 간청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족을 가르치고 영의 영향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활동이 저조한 모든 회원이 활동화 되거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다시 불러

지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활동화라는 측면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사랑을 기울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의 영향력을 다시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게 된다. 그들은 거의 언제나 친구를 얻게 될 것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 이들은 영원한 복음 축복을 재발견하도록 도운 이들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는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다. □



활동화로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활동이 저조한 말일성도들이 복음의식과 기회에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돕는 체험을 통해 드러난 여덟 가지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활동적인 회원들과의 긍정적인 체험이 필수적이다. 참된 우정은 때로 교회와 다른 회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한다.

2. 사람들은 그들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다. 새롭게 활동화된 회원들은 자신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는 회원들에게 가장 잘 반응을 보이며 그들을 평가하기보다는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그들이 활동 회원의 노력이 참된 것이며 단지 의무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님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3. 다른 사람을 활동화로 이끌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속성은 함께 나누고자 함과 친애와 헌신이다. 여기서, 함께 나누고자 함이란 자신이 체험한 바를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친애란 신뢰하고 우정어린 태도를 갖는다는 뜻이다. 헌신이란 방문과 약속 지키기에 있어서 지속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4. 다른 사람들을 활동적인 회원이 되도록 돕고자 하는 회원들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느낀다. 그들의 영적인 삶에 대해 염려한다.

5. 재활동에는 네 가지 뚜렷한 양상이 있다. (가) 한 개인이 교회에 충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결정한다. (나) 활동이 저조한 사람이 문제를 복음 원리에의 순종을 통해 해결하도록 돕는다. (다) 그 사람이 말일성도들 가운데에서 받아들여지고 어울릴 수 있

도록 돕는다. (라) 활동이 저조한 회원이 주님께서 그를 받아들이고 회개한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흔히 활동화의 이 과정에서 신권 지도자가 개입되어야만 한다.

6.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은 복음과 관련된 자신들의 경험을 해석하는 데 있어 활동 회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7. 활동화에는 흔히 활동이 저조한 회원에게 영적인 경험을 다시 소개하는 것이 수반된다. 이러한 회원들이 주님의 영을 느끼고 그들이 진리를 아는데 영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함께 하도록 한다.

8. 발전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키우는 것이 활동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

나의 삶을 돌이킴

후안 안토니오 플로레스

다니엘 팔머 시 사진.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은 촬영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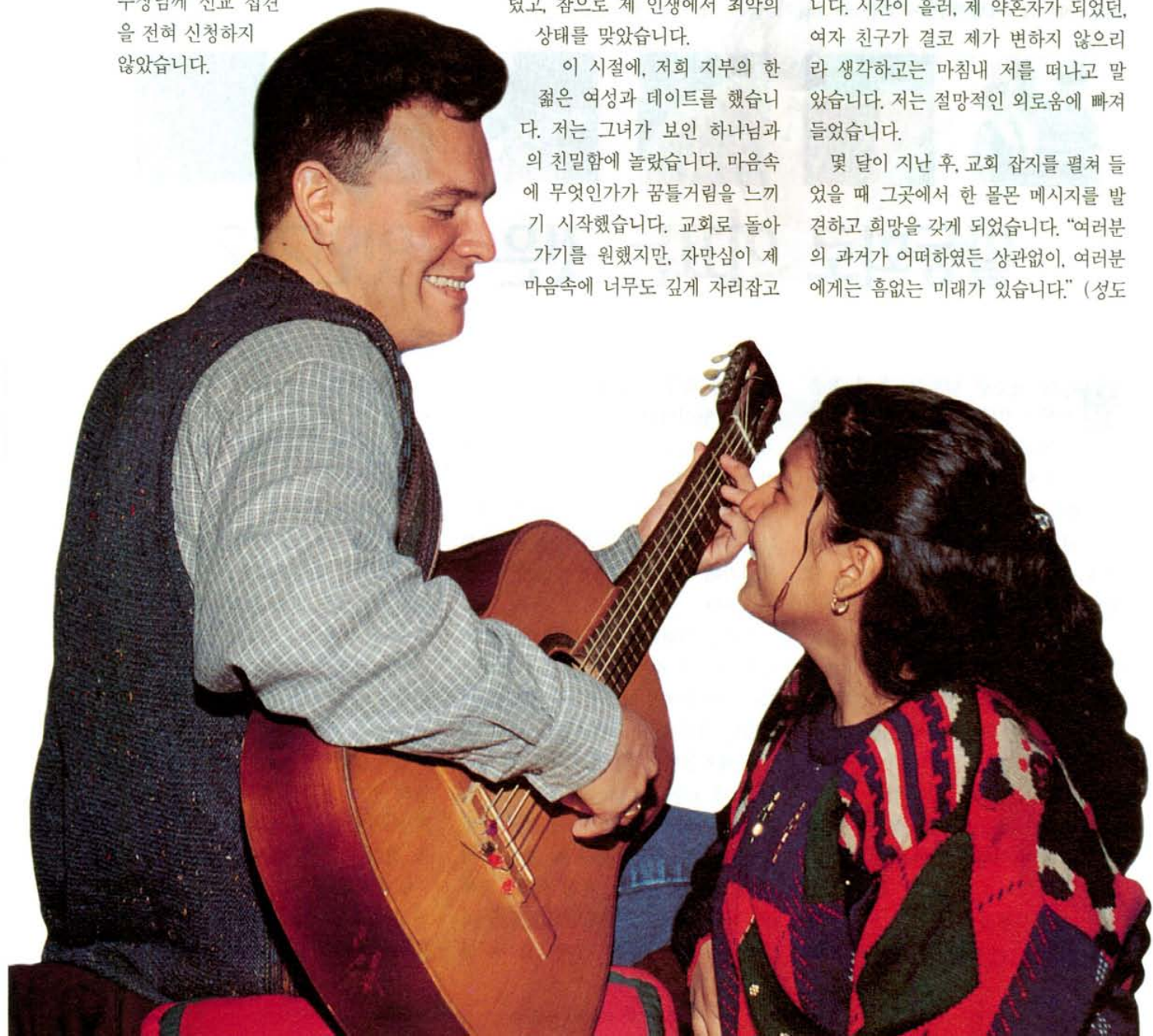
저는 멕시코의 한 지부에서 교회의 회원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십대였을 때는 마치 엘마 이세와 같이 반항하였습니다. 제 친구들 대다수가 19세가 되어 선교사로 떠날 때, 저는 지부장님께 선교 접견을 전혀 신청하지 않았습니

다. 저는 언제나 핑계를 대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머니는 과부였고 많은 재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교회 활동은 점차 시들해졌습니다. 그 다음 이 년 동안 저는 분노에 시달렸고, 참으로 제 인생에서 최악의 상태를 맞았습니다.

이 시절에, 저희 지부의 한 젊은 여성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보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놀랐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꿈틀거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자만심이 제 마음속에 너무도 깊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반항하는 싸움이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갔지만, 모임의 영을 망쳐 놓으려고 언제나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무엇인가를 말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약혼자가 되었던, 여자 친구가 결국 제가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는 마침내 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외로움에 빠져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교회 잡지를 펼쳐 들었을 때 그곳에서 한 몰몬 메시지를 발견하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였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는 흠없는 미래가 있습니다."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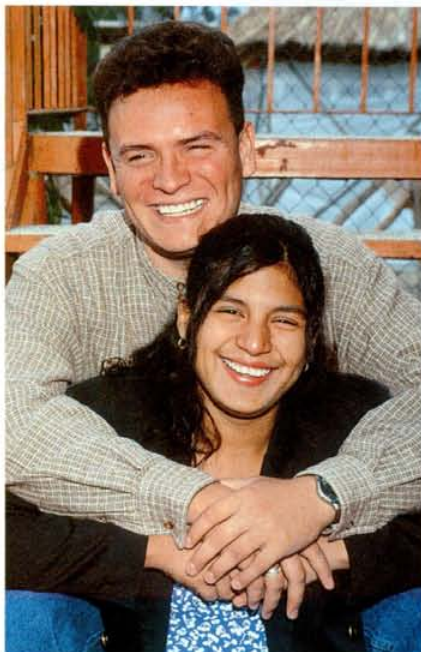
의 벗, 1989년 9월, 47쪽) 하지만, 여전히 저는 낙담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세상적인 방법을 좇음으로써 행복하게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날, 제 삶을 뒤바꿔 놓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무엇인가가 아니 누군가가 제 어깨를 두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 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약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조금 지난 후, 저는 다시 똑 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이번에는 제 어깨를 누르는 힘이 너무나 커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수 년 만에 처음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느덧, 그 상태로 저는 잠들었습니다. 일어났을 때, 제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마치 제가 일생 동안 잠만 자다가, 막 깨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문경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기를 끝마치고, 온 마음을 다 기울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슴에 뜨거운 불길이 타오름을 느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증을 전하고,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일조를 내고, 거룩한 경전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행복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깝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지부장과 함께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제 선교사 부름을 위한 서류를 보냈습니다.



후안 안토니오 플로레스의 여력을 받아 개세임



지방부 회원들은 제가 멕시코 치와와 선교부에 부름을 받았음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떠나기 전 마지막 주일에, 저는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마 이세가 변했고, 모사이야 왕의 아들들이 변했고, 지에즈롬이 변했고 바울이 변했고, 제가 변했습니다.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저는 사랑의 힘을 경험할 수 있었고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귀환한 후, 저는 에리카 멘도자와 텍사스 달라스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저희는 각기 주일학교와 청년회에서 부름을 받아 바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가기 위해 물위를 걷다가 깊은 바다에 빠지는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베드로의 입장에 제 자신을 건주어 봅니다. (마태복음 14:22~23 참조) 때로 제 자신이 주춤한다고 느낄 때마다, 저는 -그분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기 위해 그분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제가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 하신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우리는 흠없는 미래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에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후안과 리카 플로레스

신앙이 깊은 여성



“위대한 말일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여성들은 “신앙이 깊고 진리를 용감히 지키며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고결한” 여성이 됨으로써

“집과 땅, 금은, 또는 세속적인 부가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시며 수행하도록 한 위대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도록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말했다.” (윌포드 우드럽 설교집, 지 호머 더럼 편[1946년], 130쪽)

다음 장에서 우드럽 대관장이 말한 여성, 즉 하나님의 뜻을 고결한 마음으로 용감하게 따르려는 신앙이 깊은 여성을 나타내는 그림을 소개한다.

그림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소재한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에서 최근에 전시된 것들이다. 성구 인용문을 제외하고 기타 인용문은 전시된 그림을 위해 화가가 쓴 본문에서 인용한 것이다.

주님의 계보에 속한 여성들 (왼쪽과 배경)

샬리 클린턴 포이트 그림
캔버스 유화(121cm x 91cm)



부아와 십브라가 바로의 명을 어기다

샬리 클린턴 포이트 그림
캔버스 유화(121cm x 89cm)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아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남자여든 죽이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 지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출애굽기 1:15 17, 20)

영감을 구함

“의의 길은 뜬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
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잠언 4:18, 21) 우리는 경
전에 등장한 여성들의 모범을 통해서 영
감을 구한다. 모범의 예가 롯이나 에

스더의 용기 또는 마리아나 사래의 굳
건함 등 무엇이든 간에, 이 모두를 통해
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
앙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
야 한다.



산파: 네가 가는 길은 산파가 선택한 길이로다

크리스탈 호이터 그림
캔버스 유화(61cm x 56cm)

“그녀의 죽음을 누가 기억하리요?
그녀의 영원한 속삭임을 누가 따르리요?”

크리스티나

데니스 스미스
청동 주물(182cm x 40cm x 40cm)

“한 밤중에 촛불을 밝힌 가운데 별인 언쟁
때문에 흘린 눈물로 인해 그녀의 영은 참담
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끝
없이 넓은 바다 건너 끈끈이 이어지고 있는
시온으로 초대하는 외친 곧 그녀와 부모 간
의 혈육의 유대는 감당케 어려울 정도로 강
렬하였습니다. 쓸쓸한 어둠 속에서 그녀는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며 서있
었습니다.”

성도의 빛/1998년 5월호



성도의 빛/1998년 5월호

영성을 기를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곁에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교리와 성약 88: 63)

오직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게 되며 구원의 계획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영성을 키울 때 하나님을 닮게 된다.



근원의 인식

마커스 빈센트 그림
패널 유화(130cm x 51cm)

“우리가 자신에게 던지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질문은 이상하리만큼 너무나도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열심히 찾는 사람은 천사의 가벼운 속삭임이 감미롭게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조용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막이 걷히면서 해답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그것은 곧 우리는 하늘에서 왔다는 부인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곧 지식의 문이 닫히면서 당사자는 깊은 명상에 잠기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얻게 되는 해답과 통찰로 자신의 근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태도

로라 리 스테이 브래드쇼 작품
청동 주물(91cm x 33cm x 20cm)

“여성다운 태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성이 자신감에 차있으면 굳이 아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고상한 태도에서 평화롭고 조용하며 경건한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빛을 향해 돌아 섬(회개)

리 베니온 그림

캔버스 유화(112cm x 81cm)

“회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역에 둔 제라니움은 언제나 빛을 향함으로써 이 신성한 원리를 잘 예시해 줍니다. 17세 된 저의 딸 루시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식물이 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빛을 받아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아주 달콤한 자양분으로 바꾸는 일 말이에요.'”



통과 의례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받는 의식)

켈 비 마이어즈 그림

캔버스 유화(158cm x 114cm)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사 온전한 의와 지혜와 진리 가운데 그분이 저와 동행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이 성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하나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생활을 함

“충실하여 참고 견디는 자는... 영생을 상속으로 물려 받을 것이니라.” (고리와 성약 50:5)

인생은 여행이자 시험의 길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상에 온 목적은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고 일상 생활의 도전을 의롭게 대응할 때, 참된 기쁨과 영원한 승영의 길로 가게 된다.



메리 앤 새비지

도로시아 랜지 그림

은색 인쇄(39cm x 39cm)

“메리 앤은 평생동안 충실한 말일성도로 지냈으며 개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여섯 살 되던 해인 1856년에 가족과 함께 평원을 횡단하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린 자녀들을 태운 손수레를 끌고 평원과 사막을 건넜습니다. 도중에 자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죽은 자매의 시체를 담요에 싸서 한 쪽에 놓았습니다.’”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진 라이턴-룬드버그 그림

캔버스 유화(152cm x 11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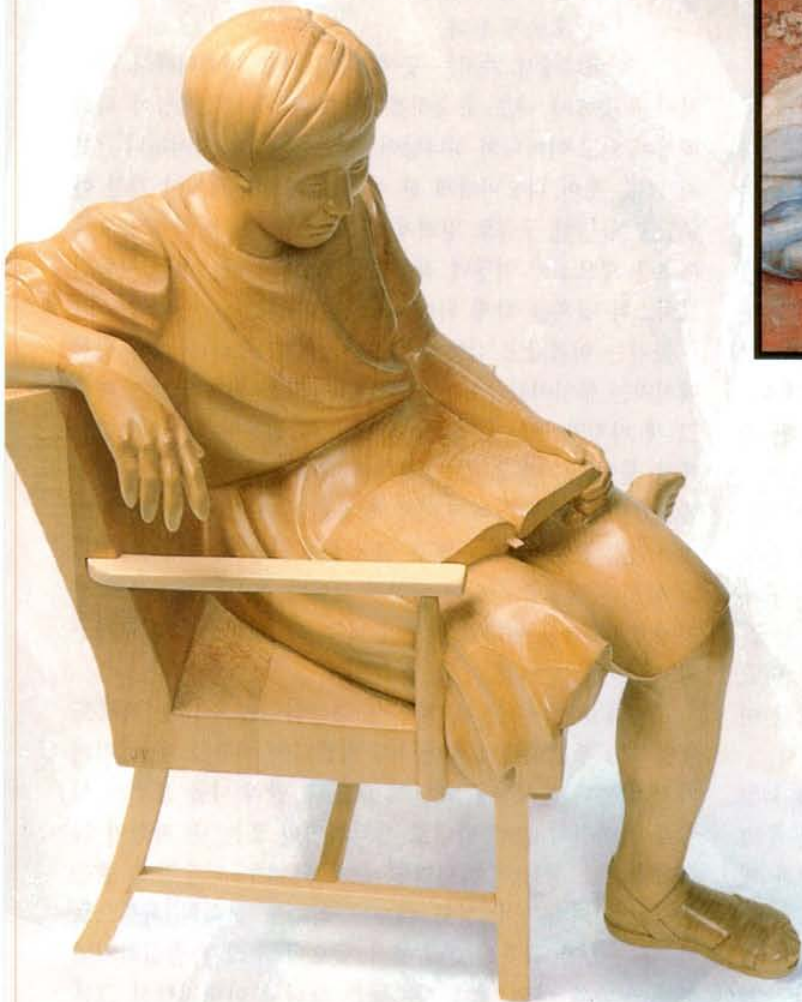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이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도다” (시편 33:5 6)

경전을 읽음

존 태이 작

목판 조각(58cm x 28cm x 46cm)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세하고 고요한 목소리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속삭이십니다... 따라서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여자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가치가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해 이 생이 다하는 동안 쉬지 않고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배스쉬바 더블류 스미스, "상호부조회에 드리는 신년 하례 메시지," 우먼즈 엑스포너트, 1960년 1월호, 1쪽)



리다 레인의 어머니를 품어 계세요

어머니와 자녀

윌터 레인 그림

캔버스 유화(71cm x 40cm)

"저는 모든 자녀들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기를 간구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된다면 참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캐롤라인 로저스 스무트, 편집인 바바라 비 스미스와 브라이드 대처가 지은 "회복의 여결"에서[1997년], 162쪽)

작품 사진 촬영: 론 라드

가장 훌륭한 가족으로부터

케이 헤이고

4는 나쁜 유전자를 가진 것이 틀림없어. 가족에 관한 또 다른 공과를 듣고 난 후 나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공과는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공과의 목적은 우리가 만일 충실하다면 자녀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훌륭한 부모가 되도록 격려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럴 기회가 없었다. 나의 가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혼, 알코올 중독, 무신론에다 온갖 종류의 타락 행위에 있어서 평균 수준 이상이었다. 개종자인 나는 가끔 말일성도인 부모를 가진 운 좋은 사람들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내 주위에는 수세대 동안 교회에 뿌리가 깊은 가정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들 중 일부에게는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였다. “난 아주 신하고 신앙심이 강한 가정에서 자라난 누군가와 결혼해야 돼.” 한 친구가 말했다. “내 자녀들이 좋은 유전자를 가졌으면 좋겠거든.”

만약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나는 쓸데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신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아무리 힘들게 노력한다 해도, 아무리 많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와 같이 되려고 노력한다 해도, 나는 항상 “2 등급” 밖에 안 될 것 아닌가? 내 자신에겐 아무 결함이 없다 해도, 나는 교회에서 충실했던 조상들을 가진 다른 회원들보다 여전히 못한 것 아닌가?

나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축복과 경전을 통해 받게 되었다. “룯기를 읽어 봐.” 학기가 시작할 때 나에게 축복을 주었던 한 친구가 그렇게 말했다. “거기에 너를 위한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

나는 곧 나를 위한 메시지가 있다는 구약전서를 찾아 읽기 시작했다. 나는 읽고, 기도하고, 또다시 읽었다. 주석도 함께 공부했다. 나는 남편이 믿는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그녀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으로부터



용감히 돌아섰던 룯을 알게 되면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의 남편이 죽은 후에도 자신의 새 종교를 떠나지 않았던 그녀의 신앙심을 존경하게 되었다. 그 대신 그녀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친구와 가족과 친숙했던 모든 것을 떠나 나오미의 고향으로의 여행길에 오르게 된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룯기 1:16) 룯이 나오미에게 한 이 말은 구약전서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구절로 알려져 있다. 룯은 나오미의 도움으로 새로운 땅으로의 여정에 잘 적응하고 결국에는 선한 사람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어 아들을 낳는다.

룯기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그러나 나를 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마침내 나는 영을 통해 열쇠는 바로 그 책 마지막 부분에, 특히 그리스도의 혈통이 된 다윗 혈통에서 룯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압 여인이자 이국 땅에서 온 개종자였던 룯은 위대한 신앙심을 보여 주었고 결국에는 가장 축복 받은 고귀한 혈통의 필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우상 숭배자들의 집안에서 나온 이 위대한 여인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실 구세주의 선조가 된 것이다.

그렇게 하여 나는 내 자신이 충실하다면 어떠한 축복도 말일성도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를 비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만약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여전히 그와 반대로 생각하거나 또는 내 자신이 그 사람들처럼 생각해 버린다면 그것은 너무 단순하고 좁은 생각일 것이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나는 가장 훌륭한 가족에서 왔으며 우리가 충실하기만 한다면 나와 나의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똑같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헨리 라일런드, 롯

“모압 여인 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뉘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찌어다 야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기 2:2~3)





월포드 우드럼 대관장은 위대한 말일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여성들은 “신앙이 깊고
진리를 용감히 지키며,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고결한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앙이 깊은 여성” 42쪽 참조